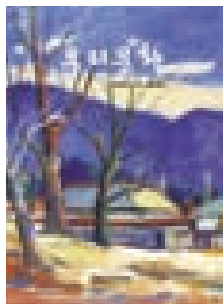


02	향토문화 공모전	
08	문화원탐방	증평문화원
12	연재 I	문화원장에게 듣는 우리나라 이야기
16	문화원이야기 I	고창문화원
17	문화원이야기 II	문경문화원
18	특별기고	충주문화원
22	함께 읽는 수필	억새와 갈대
24	특집	지방문화원 교류사업
24		부산동래문화원) 부산의 뿌리가 넓은 들을 만나다
28		당진문화원) 아주 특별한 만남
29		안산문화원) 고창 문화답사기
33		지방문화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신호탄
35	기획)한국의 문화	한국의 제의례 ③
38	국민의 시 낭송의 밤	
43	연재 II	아리랑 _ 제주도 및 해외 아리랑 메아리
47	연합회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83		책갈피
86		우리문화 소식
91		원장동정



표지그림. '겨울나무'
그린이 이원달 강동문화원장
1993년 제작
Oil on Canvas, 53cm × 45.5cm

등록번호 서울마02984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최중수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정주환(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최원현(한국수필작가회 회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제2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 및 향토사 자유토론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이틀간에 걸쳐 경북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제2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 및 향토사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향토문화발전과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로 23회째를 맞아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의 시상식을 위시해서 향토사 관련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경북지역 문화원장을 비롯하여 향토사학자 등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토사의 발굴로 우리문화 정체성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체계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향토사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 접수된 54편의 논문가운데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은 공주시의 사투리와 민속용어 등을 소재로 한 이걸재 씨의 ‘공주시의 사투리, 민속용어, 생활용어 채록보고서’가 차지하였다.

이어서 외국어대 강진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향토사 연구의 현황과 향토사가의 연구활동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유토론회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심사평〉

대상 (국무총리상)

이걸재(李傑宰)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 공연기획 계장

‘공주시의 사투리, 민속용어, 생활용어 채록보고서’

이 논문은 충남 공주시를 대상으로 사투리, 민속용어, 생활용어 등 공주시방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채록한 것이다. 자료수집의 성실성을 통해 완성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한 보기 드문 자료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 학자들이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지방에서 생활하는 향토사 학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향토사 연구에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이정환(李丁漢) 울산 현대청운중학교 한문교사

「울산 목장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울산목장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필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서 방대한 자료를 발췌하여 논리적인 문장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자세히 답사하고 논문을 작성하였다. 주제선정이나 자료 활용능력이 적절하며, 논문의 체제 또한 우수하다. 현장감이 있는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어 향토사연구자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다.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김강산(金剛山) 전 태백문화원 원장

「烏金簪神考」

이 자료는 조사연구자가 동국여지승람, 척주지, 여지도서, 남명선생별집, 미수기언, 진주부 선생안, 척주지 속편, 변안선생문집, 삼척군지, 삼척향토지, 진주지 등 방대한 문헌에서 오금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발췌 분석하여 오금잠이 공양왕의 비녀라는 것을 밝혔고, 또한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 두상을 매장한 공양왕능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에 두상이 없는 시신을 매장한 공양왕능이라는 것을 밝혔다. 비록 논지의 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수상(국사편찬위원장상)

김차웅(金且雄) 기장향교 장의

「車城歌의 명칭, 종류 및 작가, 연대 등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차성가(車城歌)라는 기장지역과 관련된 노래 가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자료조사 발굴이나 자료해석 및 의미부여 등을 빈틈없이 잘 처리하였고, 아울러 체재구성 또한 기존자료와 새로 발견된 자료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필자 나름의 논지로 잘 정리하였다. 다만 자료의 성격상 현장조사보다는 다소 문헌에 치중하였다는 점이 아쉬우나 향토문화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상(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신상구(辛相龜) 천안중학교 교사

「항일운동가 李柏夏 선생의 생애와 업적」

이 논문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1919년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 아우내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이백하 선생이 기획했고, 병천(아우내)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구국동지회 명의로 조인원선생이 낭독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 논문이다. 필자는 많은 노력으로 병천지역 독립선언서를 발굴하여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수준 높은 논문을 작성하였다.

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

이재완(李在浣) 독도박물관 학예사

「울릉도 민가의 공간구성과 거주관행」

이 논문은 필자가 울릉도의 역사, 문화, 사회 등을 울릉도 민가의 공간구성과 거주관행을 통하여 살펴보고자한 논문이다. 필자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오주연문장전산고, 춘관지 등 많은 고서와 신문, 학술지, 저서, 지도,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예리한 판단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작성한 훌륭한 논문이다.

장려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김성호(金成浩)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재학

「독도수호에 있어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독도를 지켜왔으며, 또한 국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독도를 수호해 왔고, 우리들은 앞으로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였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민간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기존에 밝혀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을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장려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조중현(趙重憲) 논산향토사연구회 회장

「계룡사 폐사 수석사에 대한 찰고」

이 논문은 계룡산 폐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폐사된 수석사의 역사적 규명을 시도한 논문으로 현장답사와 문헌자료를 통한 자료발굴의 성실성이 돋보이며, 자료 활용의 능력이 우수하고 학계의 연구활동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 논문의 체제와 논문구성 능력도 우수하여 앞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주소영(朱素影)대구시사편찬실 근무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독서활동 실태」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대구지역의 독서상황을 파악하여 일제통치자들이 그들의 식민지화에 유리한 서적들만 유통시키며, 일본사, 세계사, 문학 등에 관한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우리들의 독립의지의 근원을 차단하려 하였던 내용들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적색독서회와 같은 지하 독서단체들이 활동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들을 밝힌 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장려상(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상)
명수남(明壽男) 태안문화원장

「태안 도요지 유적 지표조사」

태안도요지 유적지 지표조사는 태안읍 상옥리, 도내리에 분포되어 있는 자기도요지 유적을 지표 조사한 글로 문헌을 조사하고, 유적지를 실제로 답사하여 성실하게 정리한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순수한 글이다. 자연 지리, 역사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상세한 지도와 유적, 유물사진들을 첨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공로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김종우(金宗佑)경상북도지회장과 이상인(李相寅)울릉문화원장이 각각 받았다.

〈수상소감〉

이 걸 재 (대상, 국무총리상)

저에게 이번의 영예는 <공주의 사투리와 민속용어에 가치를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제 자신이 우리 문화를 찾아 헤맨 세월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니라는 반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기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로서 이 보고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입력하면서 참으로 여러 차례 혼자 중얼거린 말이 있습니다. ‘ 과연 지금까지 모은 자료가 절반은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절반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은 결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게 하나에 붙어있는 부분 명칭이 열개가 넘고 고장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농기구의 부분 명칭도 다 찾지 못했으니까요.

민속 채록을 위해서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제가 찾는 민속에 대한 예능을 보유하신 어르신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이미 찾을 수조차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주의 사투리, 민속용어, (사라진)생활용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좀더 열심히, 노인어른들께서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한국에는 한국이 너무 적다’고 말해왔습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 정작 우리의 정신문화는 요란한 서구 문화에 밀려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워서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제게 힘을 주시는 정재욱 원장님. 그리고 원고 정리를 도와주신 최병숙선생에게 감사드리며 세상살이에 취해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을 항상 안스러워 하시는 어머님께 이 영예를 올립니다.



지금은 꿈꾸는 때

증평문화원



① 유명호 증평군수와 최건성 증평문화원장, 국화꽃을 돌아보고 있다.
② 사람들과 웃으며 함께 하는 자리. 최건성 원장
③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사무실 내부.
짐을 싸느라 지저분하다지만 온기가 가득하다.

증평의 가을이 익어간다. 증평이 온통 안개에 싸인 한낮. 채 견히지 않은 안개 사이로 증평문화원 앞 주차장은 국화가 만발했다. 바로 국화축제 때문이다. 실버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의 산물이다. 이 사업의 참여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내내 물주고 햇볕 쬌으며 마음으로 키운 국화꽃이다. 색도 가지각색 국화품종도

각양각색이지만 같은 품종이어도 개성이 각각 다르다. 어떤 건 잔가지를 많이 내어 풍성하게 자라났는가 하면 어떤 건 큰 꽃송이가 큼직큼직 얼굴만 하게 자랐다.

2006년에 시작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야생초 이야기’ 사업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소위 대박이었다. 2007년 일산에서 열린 실버문화축제에서는 이고지고 나른 국화 덕 좀 톡톡히 봤다고.

2008년 가을. 이번 실버축제 때에는 많은 국화를 들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 원을 푼듯 증평문화원 앞마당에는 국화로 가득했다. 그나마 축제 며칠 전에 200여개의 국화가 서리를 맞았다는데도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공간에는 국화가 빼곡하다. 서리 맞지 않은 국화 화분까지 들였다면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거다.



엄마 손잡고 나온 아기도 신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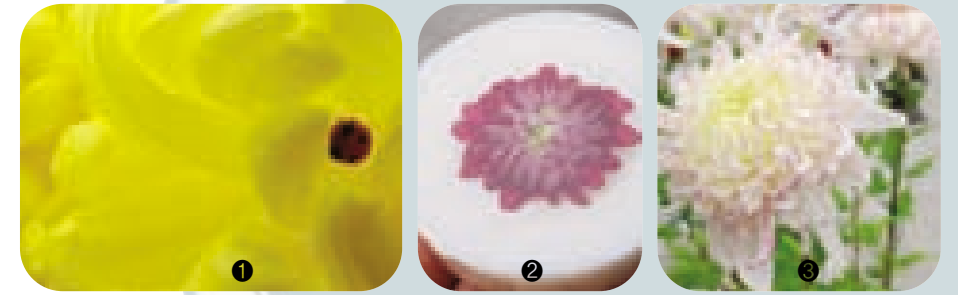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다. 하얗고 길의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들고, 손주 손 붙잡고 산책 나왔다가 향에 취해 이끌려온 할아버지까지 여러 사람들로 축제는 무르익는다.

축제의 백미는 바로 먹거리. 증평의 술은 '두레주' 부터 국화를 듬뿍 넣은 해물전까지 동네 인심이 아주 후하다. 특히 국화를 넣은 해물전은 별미인데 국화향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이들에게나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좋은 이색행사로는 아로마 비누 체험이다. 미리 준비해둔 용액을 종이컵에 부어 취향에 따라 약간의 아로마 오일을 넣은 후 마지막으로 국화를 얹어두어 굳히면 끝이다. 미리 준비해둔 국화꽃을 얹으니 '인기만점 효과만점 증평문화원표 비누' 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아저씨 한 명은 그 향에 이끌려 왔으며 비누 하나 달란다. '마누라 줄 거야' 말하며 얼굴을 붉히는 바람에 구경하던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보를 터트린다.

마침 증평문화원은 원사 리모델링 중이라 온통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한 건물에 있던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2층의 문화원 사무실이 1층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이다.

2008년 8월. 최 원장이 취임한 때다. 11월까지 숨 가쁘게 달려와 막상 뒤돌아보니 길지 않은 길이건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다짐이 있었다. 더욱이 원사 리모델링까지 겹치니 각오가 남달라진다는 그다.



① 작은 벌레들도 잔치다. 이곳에는 작은 무당벌레가 자리를 잡고 있다.
② 소국을 얹은 비누
③ 주차장에 만개한 국화

“취임한지 겨우 3개월이 지났으니까 전 다른 분들에 비하면 초보원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참 많은 길을 거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원장님들은 오죽하셨을까. 주말에도 쉴 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사무실도 확장하게 되고 참 좋습니다. 마음은 저만치에 있어 조금한데, 일이 마음처럼 빨리 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한걸음씩 따박따박 걸어갈 각오입니다.”

축제에 오는 한사람 한사람 일일이 챙기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의 성실함이 더욱 돋보인다. 주차장으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최 원장의 인사소리가 찌렁찌렁하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까지 아우르는 말일테죠. 전통을 잊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까지 나아가자는 게 제가 늘 생각하는 우리 문화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꿈을 마음에 담죠.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전국 규모로 본다면 우리는 참 작은 문화원이지만 그 꿈만큼은 어디 문화원에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언제나 풍성하게 꿈꾸며, 또 꿈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문화원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증평문화원의 가을은 만개한 국화만큼이나 풍성하다. 아마 이렇게 모두 한마음으로 꿈꾸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간사들과 국장이 문화원의 보배라는 최 원장의 말처럼 사람이 꿈이 되고 현실이 되는 문화원의 미래는 가을의 국화처럼 밝고 환하다. ☼



각종 국화를 휴대폰 사진기로 찍는 사람들.

대전에 오면 이런 즐거움이...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이제 어느 한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주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특색이 살아남기도 어려운 시대가 요즘이란 생각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의 무슨무슨 상품이, 또는 어느 지역의 어떤 식당 메뉴가 인기를 끈다는 소문이 나면 인터넷을 타고 즉각적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의 관광지에 비슷비슷한 관광 상품이 전시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왜 우리에게서 각 고장의 특징을 살린 상품이 없을까 생각해보았는데 아마도 전국이 1일생활권이 되면서 잘 팔리는 관광 상품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케 된다.

관광 상품의 차별화란 차원에서 사실 전국 각 지역만의 재미있는 ‘꺼리’를 발굴하고 이를 잘 개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一村一品운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함평나비축제’와 같은 문화적 발상으로 지역을 변모시킨 사례 역시 지방화시대에 좋은 본보기다. 지역만의 특색과 재미있는 꺼리를 발굴하고 이를 잘 다듬어 나가는 일은 그래서 문화 향수층의 저변을 확대해 지역문화의 소중한 자원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활동이다.

지역의 독특함과 재미는 우선 자연환경과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다. 대전은 우리말인 한밭이 한자화된 지명이다. 한밭은 큰 밭 곧 넓은 들판을 가리키는데 그래서인지 대전지역은 오래전 즉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구석기부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시대 유적이 대전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 특히 괴정동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단계의 한국식 청동 단검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이 지역 선사문화를 32곳의 유적지와 노은동에 위치한 선사박물관에서 찾아보는 재미를 외국인들은 대전에서 맛볼 수 있다. 대전은 산성이 많은 도시에 속한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 및 보문산, 계족산, 장태산, 식장산 등 3대 하천과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대전은 삼국시대에 백제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다. 본래 대전지역은 백제의 동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던 우술군에 해당되며 신라의 고시산군(지금의 옥천)과 마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백제, 신라 양국 간의 통로로 중요시 되었다.¹⁾ 이 같은 이유로

해서 이 지역에는 계족산성을 비롯한 백제방어의 제1선을 이룬 산성과 보문 산성 등 도로의 감시 및 2차적인 방어역할을 한 산성 등 모두 40여개의 산성과 50여개의 보루를 지니고 있어 대전은 가히 산성(山城)의 도시라 할 수 있다. 대전에 오면 백제시대의 산성을 마음껏 볼 수 있어 백제의 옛 역사를 지켜보는 재미를 맛보게 된다.

대전을 도시 역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대전이야말로 대표적 근대도시라 할 수 있다. 대전이 오늘날 6대도시에 속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건설한 경부선 철도 부설공사를 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1932년에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오늘날의 위치(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287)로 옮겨오면서 대전은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같은 연유로 대전의 원도심인 충남도청과 대전역사이의 공간은 우리나라 근대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면서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곳에 오면 대전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하며 화랑과 소규모공연장이 모여 있어 나름의 대전문화를 맛볼 수 있다. 최근 대전중구청이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주요시책으로 펼치고 있어 으능정이 거리 및 대흥동문화의 거리는 대전의 문화적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대전팔경(大田八景)이 있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식장산 생태림인데 식장산은 대전동남쪽에 위치한 598m의 산으로 자연생태환경이 뛰어나다. 다음으로는 보문산녹음과 구봉산단풍, 장태산 휴양림이 있는데 458m의 보문산은 대전의 남쪽인 중구의 중심부에 위치해있는데 10여개의 등산로와 20여개의 약수터가 있어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구지역에 위치한 높이 264m의 구봉산은 아홉 개의 봉우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산의 남쪽에 갑천이 휘돌아 흐르고 있어 명당으로도 꼽힌다. 높이 186m의 나지막한 산인 장태산은 호수와 주위경관 특히 아름답게 메타세쿼이아나무가 짙게 뽀아 있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휴양림을 지니고 있다. 장태산에서 바라보는 낙조(落照)는 황홀함 그 자체라고 할 만큼 멋진 풍광을 연출한다. 이와 함께 유성온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청호수, 계족산 노을은 대전을 대표하는 볼거리이며 관광자원이다. 사족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알려진 이 대전팔경에는 대전의 문화와 역사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대전을 찾는 재미를 더해줄 것이 틀림없다.

보는 것과 함께 먹는 재미야말로 사람에게 오감(五感)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전은 호남지역처럼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과 음식점을 추천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맛기행」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서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6가지를 추천하고 있다. 대전6昧 라고 이름붙인 6가지 대전 대표음식은 대전에서 전래되었거나 타 지역 음식보다 독특해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다. 이 대전6昧는 「설령탕, 돌솥밥, 삼계탕, 숯골냉면, 대청호민물고기매운탕, 구죽도토리묵」인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설령탕 : 40여년전부터 대전역주변에서 설령탕을 전문으로 취급해 오던 한밭설령탕집이 명성을 얻

1) 대전광역시, 「대전의 역사와 문화」, 대전시역사문화교과서편찬위원회, 2007.

으면서 대전 시민에게 친숙한 음식으로 자리했다. 오랫동안 고아낸 육수의 깊은 맛이 일품이며 깍두기와 김치를 곁들여 먹는다.

▲ 돌솥밥 : 뽕쌀과 잡곡, 은행, 당근 등을 넣고 지은 밥과 인근지역의 야채와 20여종의 나물반찬과 함께 먹는 대전의 돌솥밥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자리해왔다.

▲ 삼계탕 : 대전의 삼계탕은 대전인근의 금산인삼, 연산 닭을 이용한 조리법이 일찍부터 발달해 타 지역 삼계탕과 차별화 되는 보양식으로 정착돼 1993년부터 대전의 향토음식으로 지정돼왔다.

▲ 숯골냉면 : 숯골은 지금의 대전시 유성구 탄동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는 6.25때 피란온 이북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온 평양냉면이 바로 숯골냉면이다. 4대에 걸쳐 만들어져왔고 전해지는 이 숯골냉면은 면(메밀90%, 소맥분10%)과 육수(닭육수30%, 동치미국물70%)에서 타지방 냉면과 다르다.

▲ 대청호민물고기매운탕 : 금강쏘가리는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되던 대전특산물로 유명하며 금강중류인 신탄진지역은 예로부터 민물고기요리가 발달돼 왔다. 81년 대청댐준공후 그 주변에 민물매운탕집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 일대의 매운탕은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 구즉도토리묵 : 구즉 역시 대덕연구단지쪽의 시골마을 지명으로 이 일대에는 주변야산의 도토리를 이용한 묵을 농가 부업의 하나로 생산해왔는데 이를 외부 사람들에게 제공하면서 대전의 대표적 먹거리로 자리하게 되었다. 채 썬 묵에 멸치와 다시마로 만든 육수를 붓고 잘게 썬 김치와 김을 섞어 먹는다. 대전의 六味를 간략하게 소개했거니와 이밖에도 대전 구도심 선화동과 오류동에는 음식특화거리가 있어 외지인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전역 대합실과 대전역주위의 포장마차에서 파는 가락국수는 '대전발부르스' 노래와 함께 대전을 추억케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사람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 즐길거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야경(夜景)을 찾아 나서고 야경 속에서 추억과 낭만을 만끽하는데 대전의 대표적 야경은 보문산전망대에서 보는 대전의 야경과 갑천일대의 문화시설에서 즐기는 야경을 손에 꼽을 수 있다.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보문산 전망대에 오르면 대전 시내 모든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낮에 보는 대전시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밤에 이곳에서 보는 대전의 모습은 휘황찬란한 장관을 연출한다. 대전이 드넓은 별관임을 실감케 되는데 지인들과 이 광경을 보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갑천주위로 오면 또다른 대전의 야경을 볼 수 있다. 갑천대교에서 원촌교까지 갑천을 가운데로 끼고 갑천변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천 양안에는 술한 볼거리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대전엑스포의 상징이었던 한빛탑과 엑스포다리가 어두운 밤하늘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일대에 잠시 틈을 내 산책을 하게되면 갑천의 반짝이는 수면과 함께 한빛탑의 수려한 불빛과 엑스포다리의 멋진 조명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울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한빛광장에서는 야간에 뮤직분수쇼가 펼쳐지는데(7월~9월사이) 가히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갑천쪽에서 대전정부청사사이에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1년 내내 수준높은 공연이 그치지 않는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대



엑스포 과학공원 야경

전시립미술관이 야간조명아래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리고 엑스포남문앞 광장과 수목원에는 가족과 연인 및 친구들과끼리 자전거와 롤로스케이트 또는 산책하며 밤을 즐기는 사람들로 성시를 이룬다. 이 일대는 대전의 대표적 문화휴식공간으로 전국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다. 이곳에 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보고 느끼는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대전의 젊은이들이 찾는 밤거리는 구도심의 은행동일대인 으능정이 거리와 유성구청위쪽에서 충남대로 이어지는 공동거리를 들 수 있다. 으능정이 거리에는 신세대감각에 걸맞는 쇼핑공간과 먹거리가 많아 주로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있는 반면 공동 로데오거리에는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룬다. 대덕연구단지 등에 와있는 외국인들도 밤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이곳 공동을 즐겨 찾는다.

필자 나름대로 대전의 재미거리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재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는 재미있지만 다른 사람은 또 재미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다할 놀이거리가 없던 60·70년대와 달리 지금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대상이 너무 많아 오히려 재미있는 거리가 없는 세상이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컴퓨터는 술한 오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컴퓨터게임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대표적 재미거리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은 재미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대덕연구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 때문이다. 대덕단지의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결합될 경우 대전은 영상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전 시민과 영화인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전은 세계적인 재미거리를 생산해내는 가장 재미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조성남 대전시지회장/대전중구문화원장 —

고창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우회 노년을 즐겁게, 다함께 차차차!!



고창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우회는 지난 10월 14일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창설 2주년기념행사를 가졌다.

‘인생은 즐겁게! 댄스는 신나게! 모임은 화목하게! 다함께 차차차!’ 캣츠프레이즈 아래 제2인생을 여는 고창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우회(회장 박정규)는 댄스스포츠를 통해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당초 문화원의 주민정보화 교육과정의 하나로 20여 명의 수강생들이 2개월 동안 학습을 받던 중 댄스스포츠가 노인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믿은 회원들에 의해 동우회가 발족되면서 참여 회원들이 늘어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기자가 찾은 이 날은 마침 창설 2주년기념일이었다. 마침 기념행사장에는 붉은 블라우스와 연두색 치마를 받쳐 입은 아름다운 여성들과 검정 중절모에 나비넥타이를 맨 노인사들이 경쾌한 차차차 리듬에 삼삼오오 동작을 맞춰 스텝을 밟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발을 구르며 장단을 맞추게 한다.

박정규 회장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즐겁고 신명나는 노후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고 말하면서 라틴 댄스스포츠야말로 노인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취미생활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관리하는데 더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노인들이 차차차, 자이브 등을 멋지게 시연하고 좌석으로 돌아오는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아 있었지만 환희로 가득찬 얼굴에는 자신감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렇듯 공연을 멋지게 펼칠 수 있게 된 데에는 2년 동안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해 왔으며 고창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전구연 강사의 전문적인 강습지도의 결과라고 한다.

한편 이 모임의 회원들은 댄스스포츠를 자신들의 취미생활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근 노인병동을 비롯해 노인대학 및 체육행사, 각종 사회단체 기념행사 등에 축하공연으로 초청받아 신명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전달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고창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우회에서는 앞으로도 실력을 쌓으면서 공연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노년을 맞아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과 패기에 가득 찬 댄스스포츠 회원들의 모습에는 제2의 인생의 희망과 미래가 엿보인다. ☺

문경문화원 -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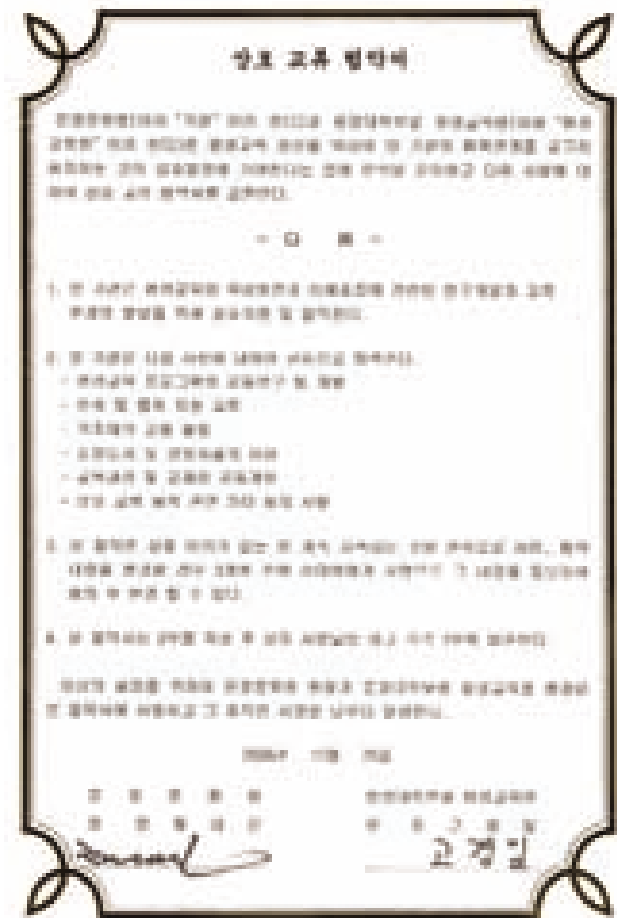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11월 25일 오후 3시 문경대학에서 관련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 평생교육활성화사업 네트워크 협약식을 가졌다.

문경대학 평생교육원(원장 고경임)이 중심이 되어 문경문화원과 문경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탁대학), 문경시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진),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변종호) 등 문경시 평생교육기관 단체가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문경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새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연구 및 개발과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기자재의 공동 활용, 소장 도서 및 정보자료의 이용,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상호교류 협력에 관련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이 단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옴으로써 발생하는 인적 물적 부족문제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의 네트워크 인센티브문제 등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문경대학 평생교육원 고경임 원장은 ‘문경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에 시민 학생 등 7백여 명이 참여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 고 말했으며, 채대진 원장은 ‘인가는 평생을 공부해도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전제,’ 그래서 평생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돌무덤 내부에 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게 파놓은 홈

고구려문화유적 답사기

흙먼지길 달려 백암성에 도착

새벽바람이 제법 차게 느껴지는 이른 시각에 차에 올랐다. 충청북도의 후원으로 도내의 문화원장들이 함께하는 고구려문화유적 답사를 떠나는 때문이었다. 아침 7시30분에 청주에 모이기로 했으니 늦어도 6시에는 출발을 해야 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태왕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우리의 조상을 찾아 나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림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청주에 모인 일행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상기된 표정들이었다. 우리는 인천공항을 통해 심양으로 향했다.

심양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족 안내자의 이북 사투리에 묘한 어색함을 느끼며 일행은 백암성으로 향했다.

앞을 분간 할 수 없을 정도의 흙먼지 길을 달려 도착한 백암성은 밖에서 성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성 내부는 밖에서 본 것과는 달리 2층의 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절벽위에서 태자하를 굽어보고 있어 물길을 한눈에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의 요충으로 보였다.

999개의 돌계단 오녀산성

이른 새벽에 출발했지만 워낙 먼 거리를 이동한 탓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둘째 날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 흘승골성(오녀산성)을 향했다.

산 정상까지의 999개의 돌계단은 오르기에 결코 쉽지가 않았다. 흘승골성은 오녀산의 정상에 솟아오른 듯 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다 보이는 그 모습으로도 천연의 요새로 보여졌다. 산 아래서 보기와 달리 정상은 제법 넓은 평탄지로 되어 있어 많은 수의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정상에 다다르니 환인 댐이 한 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치 우리지역의 충주호를 보는 것 같아 친근함을 느꼈다. 서문에서 좁다랗게 난 길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1호 대형 건물 터가 있었다. 건물 터에서는 온돌시설도 발굴되어 있었는데 쪽구들 형태를 하고 있어 방 전체에 구들을 놓는 요즘 온돌과 형태는 다르지만 구조와 기능은 우리 온돌의 원형이었음이 틀림없어 보였다. 연자방아터와 저수지 등 당시 병사들의 주둔을 위해 필요했던 시설들을 보면서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하산을 서둘렀다. 오녀산성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였다. 박물관 내에는 산성에서 발견된 토기며 꽤나 큰 솥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우리 일행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만포와 인접한 집안시(국내성) 관광

점심 식사 후 우리 일행은 고구려 두 번째 도읍인 국내성이 있는 집안시로 향했다. 4시간을 털경이며 달려 집안시에 도착하니 충주 시내를 온 것처럼 푸근했다.

인구도 22만 정도, 시내지형이 충주와 흡사하여 말 그대로 집안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 더구나 우리 충주문화원과 교류를 하고 있는 집안시정부의 문화국 직원들이 찾아와 반가움을 더해주었다. 방문 소식을 듣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히 차 한 잔을 나누고 일찍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에 장갑을 끼고 두툼한 옷으로 중무장을 한채 새벽시장구경을 나섰다. 시장에는 리어카에 베니어판을 깔고 통돼지를 칼로 잘라 줄 저울로 파는 사람, 두부도 무게로 달아 파는 아줌마, 이것, 저것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았다. 한참을 걸어 압록강변에 도착했다. 강 건너 북한의 만포시가 보이고 멀리 만포 제련소 굴뚝이 그 날 따라 슬프게 보였다. 북녘의 산은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가늠이 되었다.



백암성에서 내려오는 양떼



장군총 내부관대

국내성은 유리태왕22년(서기3년)에 졸본지역에서 도읍을 옮겨 400여년 후 인 장수왕 12년(427년)에 평양으로 천도 할 때 까지 424년간 수도로서 고구려의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천여년의 세월 속에 국내성의 모습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아침 7시 쯤이니 운동복이 우리의 교복인 듯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알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나누며 내 헤어스타일이 남다른지 시선을 주면서 등교를 하고 있었다.

중국식 좁쌀죽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환도산성으로 향했다.

환도산성은 집안시에서 북쪽으로 2.5km 지점에 있는데 국내성의 방위성으로 가장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천혜의 요새이다.

산성의 남쪽에는 압록강 지류인 통구하가 굽이쳐 흘러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산성의 안쪽은 완만한 경사지와 평지가 비교적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국내성을 직선거리로 마주보게 전망대가 있었다. 아마 전시에 지휘소 내지는 초소로 보였으며 전망대를 뒤로하여 옛 궁궐 터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공안원의 제지가 심해 궁궐터를 관람할 수가 없는데 그날은 아침에 비가 오다가 함박눈이 한 겨울처럼 내려 공안원이 없는 관계로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호태왕비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

북한당국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운영한다는 평양관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는 우리문화원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조선족학교를 잠시 들러 광개토태왕비로 향했다.

비문은 총 1775자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체는 웅장함과 소박함, 독특함을 지녀 개성과 예술성을 갖춘 명필 이었다. 비문으로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이 중국과도, 일본과도, 별개의 독자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 세기에 불거진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호태왕비를 답사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였다. 그러는 사이 우리 일행은 인근의 호태왕릉에 도착해 있었다.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란 글귀가 새겨진 벽돌이 발견 되었고 최근에는 “호태왕”이라 새겨진 청동방울이 발견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광개토대왕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한다.

세월의 흔적 탓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무성의 탓인지 허물어진 호태왕릉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호태왕의 영면을 빌면서 다음 답사지인 장군총으로 향했다.

－ 원형 보존이 잘되어 있는 장군총

장군총은 국내성에서 약 7.5km 떨어진 통구평야의 동쪽 용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외형이 피라미드와 비슷하여 동방의 금자탑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군총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었다. 무덤의 양식은 제단과 배장무덤을 갖춘 전형적인 계단식 돌무지돌방무덤이었다. 제 3단과 제 5단 사이에 돌방을 만들고 크고 작은 3개의 관대를 두고 있었다. 중앙은 장수왕(추정), 왼 쪽은 큰 부인, 오른 쪽은 작은 부인 관대가 놓여 저 있는데 작은 부인의 관대는 작았다. 안내자의 어릴 적 목격담을 빌리자면 관대의 중앙 바닥



장군총 앞의 답사단

면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돌맹이를 집어넣으면 한 참 후에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아마도 그 속이 빈 걸로 생각을 했었다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혹여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현실은 도굴을 대비해 위장으로 만든 것이고 진짜현실은 아직 지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장군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참가자 모두가 기념촬영을 위해 가지고 간 카메라 숫자대로 한참을 찍고 난 뒤에야 고분벽화를 보러 차에 오를 수가 있었다.

무용총을 비롯해 많은 고분군이 있었지만 훼손을 이유로 전부 철제문으로 굳게 막아 놓았으나 다행히 제5호분만은 볼 수가 있었다.

고분 내부로 들어가니 밖의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내부가 훈훈하게 느껴졌다. 선조들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다.

압록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일행은 만포시가 건너다보이는 압록강변으로 향했다. 현지 중국인의 망원경을 빌려 건너다 보는 북녘의 산하는 산허리에 써 놓은 선동성 구호로 을씨년스러움을 더했다.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그리고 노니는 오리떼. 동족상잔의 비극을 아는지 모르는지 웬지 가슴이 답답했다.

귀국을 위해 심양으로 가는 길에 관마산성에서 잠시 차를 세웠다. 그 옛 날 국내성을 들어가려면 그곳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관마산성’이란 표지석만이 길가에 세워져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잡고 있었다. ‘아- 고구려의 혼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소서’ ‘우리의 역사를 위해 굳게 자리를 지키소서’란 마음 속 기도를 가슴에 안고 고구려 유적을 뒤로한 채 심양으로 향했다.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수호의 역할이 또한 문화원장이 담당 할 막중한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가슴으로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답사였다. ☼



전찬덕 충주문화원장

억새와 갈대

어느덧 가을이 깊었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황금물결이 일렁이던 들녘에는 수확을 끝낸 지푸라기 더미만 여기저기 흩어져 불쌍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황량한 늦가을의 텅 빈 들판 곳곳에 무더기로 피어있는 억새와 갈대가 그나마 삭막함을 덜어주고 있다.

억새와 갈대는 생김새가 비슷하여 제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탓으로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 출연한 어느 유명인사가 바람에 춤을 추는 억새의 화면을 보고 설명하면서 갈대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 시간대에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수많은 시청자들 상당수는 억새를 갈대로 잘못 알았을 것이다.

방송에 출연을 할 만큼 유명한 인사라면 적어도 억새와 갈대를 구분하는 안목쯤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불쑥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우를 범하고서도 태연자약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억새와 갈대는 얼핏 보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억새는 벼목에 속하는 벼과의 다년생풀로 1~2m 높이에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약간 굽으며 잎의 길이는 40~70cm의 줄 모양으로 폭은 1~2cm, 잎 끝은 차차로 뾰족해진다. 가운데 맥은 굽고 흰색이며 기부는 긴 잎집으로 되어있고 긴 털이 있으며 가을 무렵에 줄기 끝에서 산방꽃차례를 이루어 작은 이삭이 뽕뽕하게 달린다. 작은 이삭은 길이 5~7mm이고 긴 자루 및 짧은 자루를 가진 것이 쌍으로 달리며, 길이 7~12mm의 털이 다발로 나고 끝에 8~15mm의 까락이 있다. 턱겨는 약간 단단하고 끝이 뾰족하며 안겨는 끝이 2개로 갈라진다. 참억새의 한 변종으로 참억새의 작은 이삭이 노란색을 띠는데 억새는 자줏빛이며 한국의 전지역에 분포한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다.

갈대는 영화목에 속하는 포아풀과의 외떡잎식물로 높이 3m 정도의 여러해살이풀이며 뿌리줄기는 거칠고 큰데 길게 가로 뻗고 마디에서 많은 수염뿌리가 나며 황백색이다. 줄기는 길고 크며 원기둥형이고 단단하

며 모여 나고 곧게 선다. 잎은 두 줄로 어긋나며 좁고 긴 바소꼴이고 길이 50cm, 너비 4cm 내외이며 끝이 점점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거칠거칠하며 녹색이다. 엽초(葉梢)는 털이 없으며 설편(舌片)은 짧고 가장자리에서 털이 난다. 꽃은 원추꽃차례로서 길이 15~50cm의 대형이며 줄기 끝에 나는데 많은 가지가 갈라지고 다수의 작은 이삭이 약간 밀착하며 처음에는 자색이었다가 나중에 갈색으로 변한다. 작은 이삭은 꽃이 5개이고 가늘고 길며 끝이 날카롭다. 영(穎)은 두 조각이고 길이가 길지 않으며 총포의 털은 길고 꽃보다 길게 나온다. 연꽃이나 개울가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나며 한국 및 북반구의 온대·난대·아한대에 분포하는데 꽃은 9월에 피는데 억새에 비해 꽃의 이삭이 풍성하다.

내가 자란 고향마을은 산들이 병풍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관계로 갈대는 볼 수 없었고 늦가을이면 온 산야가 억새꽃으로 뒤덮여버리기 때문에 바람결에 흔들리는 무더기로 핀 억새꽃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억새를 갈대로 잘못 알고 친구들과 어울려 들로 산으로 쏘다니며 한 아름씩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 두기도 하고 다발로 묶어서 벽에 걸어놓았다가 꽃이 방바닥에 수북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청소도 제대로 안하면서 방만 어지럽힌다고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했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들이 억새를 갈대라 해도 누구 한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갈대인 줄만 알았다가 철이 들어서 태인면 과학터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큰누님댁에 놀러 갔다가 조카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면서 진짜 갈대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꽃의 색깔부터가 다른 생소한 갈대를 보고 저게 뭐냐고 조카에게 물었더니 갈대라고 했다.

그럼 저건 뭐냐고 곁에 있던(내가 갈대로 알고 있는)억새를 가리켰더니 억새라고 알려 주었다. 나이는 나보다 서너 살 위지만 그래도 손아래 조카인데 명색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에게서 억새와 갈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운 셈이다.

갈대와 억새의 공통점은 벼과의 다년생 식물이라는 점인데 다년생 초본식물이란 겨울에 땅위에 있는 부분은 말라 죽어도 뿌리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음 해에 다시 줄기가 나와 꽃을 피우는 식물을 말한다. 갈대와 억새는 서식조건(자생지)이나 식물형태가 확연하게 달라 겉모습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는 억새와 갈대를 정확하게 식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억새는 억새대로 갈대는 갈대대로 저마다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고마운 식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퇴근을 하면 억새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 수청리 길을 달리면서 바람 따라 춤을 추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



김희선 정읍문화원 사무국장/수필가

벼목에 속하는 벼과의 다년생 풀인 억새



부산의 뿌리가 넓은 들을 만나다.

지방문화원 교류사업 - 동래문화원의 현장

2008년 10월 16일 오후 4시. 거창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신나는 풍물소리가 터져 나왔다. 푸른 산과 넓은 들녘, 맑은 공기 가득한 거창의 산야를 울리는 이 소리는 부산의 동래문화원(원장 이규상)과 경남의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의 문화교류를 축하하는 소리였다. 전통무용 14명과 영남농악 17명, 가야금 병창 8명으로 구성된 동래문화원의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거창문화원과 연계하여 솜씨자랑을 나선 것이었다.

이날 오전 9시에 출발한 동래문화원 공연 팀은 12시 30분경 거창에 도착, 거창문화원에서 추천해 준 보리밥정식으로 점심 해결을 하는 것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시작되었다. 공연단의 90% 이상이 50~60대의 어머님들이 주축이어서인지 시골보리밥에 대한 향수가 대단하여 식단에 대해 크게 만족해하였다. 1940년에서 1950년대 그 빈곤한 시절, 주린 배를 달래주던 음식이라며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고향이야기와 친지들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제 아무리 곤고한 삶이었다 해도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다운 법, 그때 같았으면 이런 문화 교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은 오늘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대견해 하였다. 보리밥 한 주걱에 야채와 나물을 듬뿍 넣고, 강된장 두어 술, 고추장 한 술 얹은 다음 쓱쓱 비벼서 불이 미어터지도록 입안으로 밀어 넣고 몇 번 씹지도 않은 채 꿀떡 꿀떡 잘도 넘기셨다. 그리고 냉수 한 사발, 또는 막걸리 한잔 그날 동래문화원 공연 팀은 점심으로 보리밥을 먹었다기보다, 마치 까부라졌던 푸성귀들을 찬물에 행귀 싱싱하게 되살린 것처럼 각박한 도시의 삶 속에서 잊고 지낸 추억들을 한 술 한 술 되살려 비벼 먹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어서 공연장으로 직행하여 리허설을 시작하였다. 거창박물관 야외공연장은 공연장소로는 적격이었다. 너무 크지도 넓지도 않은 규모는 물론이고 공연장 주위로 거창지역의 문화재와 푸른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더욱이 거창 벌의 맑고 청정한 공기가 여과 없이 충만한, 청량하기 그지 없는 곳이었다. 그동안은 기껏해야 부산 인근에서 배운 솜씨를 자랑하다가 먼 타지까지 가서 공연을 갖게 되어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강사와 수강생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다음을 다잡고 3개월 전부터 12주 특별수업을 편성하여 솜씨를 연마해 왔다.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 아닌가. 무대에 입, 퇴장하기, 자리 잡기, 음향기기 적응테스트, 목청 틔우기, 몸 풀기, 동선 잡기? 등등 낯선 무대를 익히기 바빴다.

한 팀씩 리허설을 마치고 좋은 공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추스르는 동안, 서둘러 들일을 마치고 거창군민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모여 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야외공연장을 메웠다. 행여 바쁜 농사철이라 공연장이 썰렁해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던 관계자들이 한시름을 더는 동안, 동래문화원 풍물단은 흘러나오는 흥겨운 우리 가요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온 몸으로 추임새를 배기며 흥을 돋우었다.

행사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유래와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었다. 거창문화원의 정주환 원장님은 인사말씀에서 “거창은 경남 서북부 끝에 자리하여 경북 전북과 마주하고 김천시, 장수군, 무주군, 성주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등 7개 시군과 경계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도 흘러 들어오는 물이 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최고의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하셨다. 뿐만 아니라 ‘넓고 큰 밝은 들’이라는 거창의 지명유래와 문화재를 소개하시며 환영해 주셨다.

이어 동래문화원의 이규상 원장님은 부산의 옛 이름이 동래였으며 “원래 부산이란 곳은 동래부에 속한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역사를 부인하고 싶었던 일제가 동래의 변방에 있는 왜관을 중심으로 일대의 바다를 매축하여 촌락을 발전시키고 행정구역을 재편하여 1936년 부산부를 개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동래는 부산 전체의 유·무형 문화재의 8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부산의 뿌리라는 자부심이 깊은 곳”이라고 소개하시며 답사를 하셨다.





다음 순서는 가야금 병창. 김청숙 외 7명이 빠르고 경쾌하게 가야금 가락을 탄주하면서 아름다운 민요로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표현한 ‘사철가’와 절경의 ‘동해바다’를 노래하였다. 한때 거창도 대가야연맹이었기 때문일까. 가야국 우륵이 발명하고 연주하였다는 가야금 소리에 거창군민들의 원형질 속에 가야금의 가락이 녹아 있는 듯 친숙한 가락과 장단에 절로 덩실덩실 이는 어깨춤으로 화답했다. 이에 신이 난 연주단은 국악의 가락 중 가장 빠르다는 휘몰이 장단으로 신명몰이에 나섰다.

내친 김에 이어진 풍물, 원래 풍물은 농악에서 유래 했다. 들녘과 온 동네를 휘감으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농악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도시에서는 무대라는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로 팽과리, 징, 북, 장구 등 사물(四物)을 위주로 연주하는 것이 발달되었다. 진양조의 느린 가락에서 시작하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으로 점점 빠르게 장단을 몰아가다가 마침내 온 신명과 가락을 휘몰아치는 휘몰이 장단을 감고 풀어내는 천명희 외 17명의 연주에 흥겨운 관객들은 팔을 뽑아 이리저리 휘젓기도 하며 여기저기서 “얼췌” 또는 “좋다” “지화자” 추임새가 연신 터졌다.

마지막으로 격양(?)된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당의를 곱게 차려 입고 양손엔 깃털로 장식한 화려한 부채를 들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구사하는 부채춤이 등장하였다. 김영자 외 13명이 연기한 부채춤은 화려한 부채도 곱디고운 사람도 산이 되어 우뚝 섰다가 물처럼 흘렀다. 갑자기 내닫다가 문득 멈춰서 돌아가기도 하고, 꽃이 되어 피었다가 나비되어 흩어지는 형상이 너무 곱고도 아름다워 한숨이 다 나왔다.

도시든 농촌이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순 없다. 그런 까닭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적인 편익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혜택이 부럽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이라서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건강한 환경에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연을 통한 거창과 동래의 문화교류는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는 가운데 농촌의 여유와 도시의 활력이 어우러져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촉매작용을 하였다 할 것이다.

거창문화원에서 준비한 공연단 선물전달식에 이어 제2부 행사로 동래문화원 수강생들의 본격적인 공연에 돌입하였다.

우선 전통무용 팀에서 정·중·동의 절제미가 어우러진 살풀이춤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우리 민족의 한과 비애를 기쁨으로 승화시킨 예술성 높은 춤으로 오승희 외 10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여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래문화원 문화학교 가야금 반 강사 김세정(37)은 “우리 민족의 원형질 속에 녹아 있는 원초적인 장단과 가락은 우리의 신명이요,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며 내년에는 거창문화원에서 동래문화원에 오셔서 공연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랐으며, 한편 공연을 관람하신 거창의 한 어르신은 “문화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이런 기회가 있어 고맙고 감사하다”며 이런 상호 문화교류가 더욱 자주 있게 되기를 바라셨다.

이튿날은 이번 행사에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정성을 다해 공연해 준 단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답하는 의미로 거창지역의 문화탐방에 나섰다. 거창 산천의 정수인 금원산 휴양림, 지재미골의 초입에 문바위와 삼국시대의 마애삼존불, 거창 유림의 문화가 살아 있는 수송대의 절경, 동계 정은 선생의 종택 산자수명한 거창지역의 진수를 맛보았다.

끝으로 내년에도 이런 자리를 베풀어 달라며 어울리지 않은 애교가 만발했다는 조금은 간지러운 이야기를, 지방문화원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의미 있는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전한다. 또한 젊은 시절 한 곳에서 근무하신 특별한 인연으로 이번 행사에 다리를 놓아 주시고 행사 종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주환 원장님과 이규상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현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해 준 백승용 국장님과 김은진 간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



황원준 동래문화원 사무국장

당진문화원 - 아주 특별한 만남

문화원 입장에서 다른 문화원과의 문화교류활동을 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직원들의 교류도 사무국 장원찬하나, 직원연수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원 교류활동은 문화원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든다. 공연내용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 초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강북문화원과 전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협의차 강북문화원을 방문하였다. 같은 조직 안에서 활동하지만 타 문화원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실무자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농촌과 달리 도시에서 문화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설과 규모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회원 관리, 강좌 관리 내부 운영에 관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시와 농촌이라는 각기 다른 문화 환경은 사업이나 활동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교류 사업을 핑계로 강북문화원 실무자들과 만나는 기회였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슷한 고민과 효과적인 사무국 운영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관한 의견들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상호 문화 교류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문화원과 문화원 간의 개별적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성공적인 운영사례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진문화원의 경우는 10여 년 전에 인근의 홍성문화원과 합동 이사회의, 합동문화탐방, 연말에 문화예술인 잔치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2005년에 당진군과 서울 강북구가 자치단체 간 자매도시로 맺어진 인연을 이어 지난 1월에 강북·당진문화원이 자매문화원으로 협정을 맺게 되었다. 강북문화원과의 문화교류도 이러한 교류 경험에 기초하여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행사 일정과 공연 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장소의 한계와 여타의 여건들이 허락지 않아 답을 수 없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당진의 대표적 전통문화 놀이인 거북놀이 등은 도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여건상 빠지게 되었다. 앞으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상호 간의 풍부한 문화체험이 되도록 보완해 가야 하겠다. 공연 팀도 결정이 되고, 당진문화원 공연 팀들은 설레임과 기대로 부풀어 있다.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절묘한 어울림으로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든다. 지난 1월 세련된 공연으로 당진무대를 장식했던 강북문화원의 공연을 떠올리면서 소박한 농촌의 정서와 감수성이 강북구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문화원과의 교류활성화에 시금석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

하 는 때 : 11월 26일 오후 2시 하 는 곳 :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내용 : 강북문화원 풍물팀, 당진어린이 합창단, 베트남무용, 벨리댄스, 색소폰 연주, 가야금(강북)과 시낭송(당진) 등



정제상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안산문화원 - 고창 문화답사기

지난 5월 29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지역문화교류사업으로 안산문화원(원장 김봉식)과 고창문화원(원장 이기화)이 도시·농촌 문화원간 자매결연식을 가졌었다. 자매결연식을 위해 고창문화원 임원 40여명이 안산을 방문한 이후 방문교류사업으로 10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80명의 안산문화가족들이 고창 모양성제 참가와 고창의 문화유적답사를 갖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10월 4일 서해안고속도로를 3시간여를 달려 고창에 도착하니 톨게이트에 고창문화원장님과 임원분들이 마중을 나와계셨다. 점심식사 후 우리를 맞이한 것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답성민속이 전승되고 있는 모양성(牟陽城)이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양성축제장 내에는 참소리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하여 축제를 위해 만들어진 여러 부대시설이 있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선 도착한 우리는 세계무형문화유산 판소리 박물관으로 안내되었으며 판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판소리”라고 판소리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고 판소리는 북의 반주에 맞추어 소리꾼이 노래하듯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표현이 넘치는 노래, 양식화된 말투, 다양한 레





퍼토리, 모방하는 몸짓으로 되어있으며 한국의 풍부한 행위예술 전통의 대표로 양반과 평민 문화를 모두 아울렀던 대표적인 전통예술이라는것을 설명해줌에 판소리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 이 판소리 박물관은 판소리의 이론가이자 개작자이며 후원가였던 동리 신재효 및 진채선, 김소희등의 다수의 역대 명창들을 기념하고 판소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 자리에 설립되었고 판소리의 유형·무형의 자료를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해석 함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수준 높은 판소리 예술의 재교육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판소리 성지화를 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무형 문화유산을 다루는 전문박물관으로서 유형유물전시, 무형판소리의 문화인류학적 해석 및 전시, 그리고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점에서 일반 박물관과 다르다고 볼수 있다. 판소리 박물관의 본관은 판소리도(圖) 갤러리인 멋마당, 세계무형문화유산 선정과 전설적인 명창들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 판소리와 명창들의 체계적인 소개와 소리꾼의 삶을 해석하고 판소리의 유형자료를 전시한 소리마당, 동리 신재효 선생의 삶과 그 유품을 전시한 고창 판소리 문화를 소개하는 아니리마당, 판소리 소리공부의 현장을 재현한 체험학습마당인 발림마당, 김소희 명창의 삶과 예술세계를 엿볼수 있는 150여점의 그의 기증물품으로 채운 기증전시실, 그 외에도 기획전시실과 홍보용 디지털 영상을 갖춘 혼마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부속 건물로 무초회향 미술관이 있고 연계 문화시설로 동리국악당과 판소리 전수관이 있다.

여기서 우리 판소리의 계보가 판소리 집성자인 신재효로부터 김수영-김창록-김찬업-김토산-진채선-

허금파-김여란-김소희-김성수-조소녀 로 이어졌음을 알았고 그 여운을 뒤로하고 바로 옆에있는 모양성에 도착한 시간에 성내에서는 순찰교대의식과 많은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잇었으며 잘 보존된 성을 둘러보기위해 답성놀이를 동참했다. 답성놀이는 성돌기, 성밧기에 어원을 두고 지금까지 고창지역의 고유 민속으로 전래되고 있으며 성을 한바퀴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바퀴돌면 무병장수하며 세바퀴돌면 극락승천한다고 한다, 아울러 성을 돌때는 반드시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돌며 다돌고난후에는 그돌을 성문입구에 쌓아둔다고 한다. 또 그 시기도 윤달에 돌면 더 효험이있고 그것도 3월윤달에 저승문이 열리는 옛세날에 돌아야 그 효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 문화원가족들은 모양성을 돌며 옛 선인들처럼 무병장수와 극락승천을 기원하였다. 답성놀이 후 이어진 모양성제 축하공연에서는 안산문화원 부설단체인 안산경기민요단과 여성락밴드 쿨식스의 공연이 있었다. 리허설을 하는 동안 텅빈 객석으로 걱정이 되었으나 공연이 시작되는 4시가 되자 빈자리 하나없이 객석이 꽉 메워져 고창군민들이 모양성제에 참여하는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흥겨운 경기민요 20분공연에 이어 락밴드의 30분 공연은 고창군민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박수와 함성속에 무대앞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추는가 하면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춤을추며 동참하였으며 우리 공연단은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과 함께 함으로서 아주 성공적이고 좋은 공연이었다.

모양성 축제를 둘러본 우리는 고창이라면 빠질 수 없는 문화유적인 고인돌을 보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였다.

고인돌이란 일반적으로 판석이나 지석을 이용해 상석을 바치고 있는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고인돌의 대부분이 무덤으로 쓰이지만 공동무덤을 상징하는 묘표석 혹은 종족이나 집단의 모임장소나 의식을 행하는 제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석묘로 불리고 중국에서는 석봉 또는 대석개묘라 하며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Dolmen 이나 Megalithic Boulder 로 불린다고 한다.특히 이곳 고창의 고인돌 유적은 북방식인 탁자식과 남방식의 바둑판식이 공존하며 이외에도 개석식, 지상석곽식등이 있으며 ·대산면 상금리를 비롯해 거의 전지역에서 약 447여기가 있으며 그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2000년 12월 2일에는 세계유산보호 협약에 따라 고창 고인돌 유적 지정번호 제 C - 997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이 유산이 전 인류를 위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탁월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은것이다. 더불어 고창이 고인돌의 고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를 기념하고 기리 남기기 위하여 올해 개관한 고인돌박물관에는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아 고인돌의 종류나 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57,988㎡의 부지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 다양한 전시물과 모형물 등으로 고인돌에 대한 제작과정, 부장품들의 전시등을 하고있었다. 특히 야외 전시실에 설치된 선사마을과 고인돌 재료로 쓰인 돌을 운반하는 체험장은 너무 실감나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고인돌박물관을 답사 후 장단강 하구의 바닷가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 풍천의 정확한 어원을 알게 되었는데 나 역시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풍천장어는 풍천이라는 지명에서 잡히는 장어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장단강 하구에 물이 만조시 바닷물이 들어올때 함께불어오는 바람의 길목(風(풍)川(천))에서 잡히

는 장어라는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고 새롭게 인식을 할수 가 있었다. 풍천장어와 복분자주를 놓고 고창문화 가족들과 안산문화가족들 간의 뜨거운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다음날 아침, 선운산의 아침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산행을 시작하였다. 동백꽃이 핀 선운사의 장관을 볼 수는 없었지만, 초가을의 선선한 하늘아래 상사화(꽃무릇)가 만발한 선운사의 모습 또한 매우 운치있었다. 선운사는 곳이 부연설명이 없어도 모두가 잘아는곳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우리 일행은 선운사, 도솔암, 용문굴, 천마봉까지 등산을 마치고 선운사에 모두 모여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점심식사 후 우리의 마지막 답사코스인 미당문학관을 찾았다. 문학관 내에 전시된 여러 작품들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유품들을 살펴보면서 생전의 미당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정주의 미당문학관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창에서의 유적 답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흔히들 복분자와 풍천장어의 고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고창에 답성놀이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모양성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등의 문화유산과 여러 명창들의 본고장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유적을 간직한 고창의 문화가 우리 안산과의 교류를 통해 좀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남는다.

고창답사 내내 동행해 준 고창의 문화관광해설사님들께 감사 드리고 이기화원장님과 김주은 사무국장님, 그리고 고창문화원 임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고창문화원과 안산문화원의 지역문화교류사업은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고 알찬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두 지역 문화원이 모두 노력하리라 다짐하였다. ☺



이영구 안산문화원 이사

지방문화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신호탄

지방문화원 교류사업은 2007년 처음 계획·추진되었다. ‘교류’라는 어휘가 가지는 의미만큼 대단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공연, 답사형 프로그램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문화원 교류사업은 기존의 사업에서 추진되던 방향과는 크게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문화원과 문화원, 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이라는 직접적인 대상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며, 대상의 주된 핵심은 바로 문화원과 문화원 간의 앓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이고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 관계자들이다. 그러나 문화원이 그 잠재된 역량과 능력을 맘껏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교류’를 통한 ‘소통’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화원은 정보의 생산과 보유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가공된 자료의 활용과 확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루트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은 커뮤니티 문화원(Community)의 제도적 안착과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방문화원 교류사업은 표면적 성과와 효과적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펼쳐 보이지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내부의 파급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의 교류시스템으로 활용한 면이 없지 않기에 콘텐츠의 부재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지방문화원 교류사업은 07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성과제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류’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그 인식제고를 통해 문화원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다.

한 지역의 문화원과 다른 지역의 문화원간의 커뮤니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적어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원 정체성 회복이다. 이것은 문화원 임직원의 일하는 보람과 삶의 보람 그리고 주인의식의 함양과 고취로까지 연결된다. 도시지역 문화원의 임직원은 항상 똑같은 일과 똑같은 패턴의 사업방식을 통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문화원은 항상 분주하고 바쁜 과정 속에서 유년층을 비롯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강좌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진행하면서 여타의 문화재단 및 메이저급 문화관련단체의 종사자와 별반 다를게 없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 문화원의 종사자를 비롯 문화원 회원들이 도시 문화원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다면 활기차고 분주한 문화원의 생활 방식과 사업패턴 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처리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함은 물론 인적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인식의 제고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자아 및 문화원 운영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문화원 회원들의 가치제고 및 인식확산이 수반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정착은 문화원과 문화원 간의 연결만으로는 그 한계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로서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즉, 소셜엔터프라이즈(Social enterprise)와의 전략적 협조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문화원의 예산체계 및 지원방식에 있어 분권교부세라는 단순한 제도에 의해 그 존립이 흔들리는 것은 위와 같은 연결고리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커뮤니티의 완성에는 문화원과 문화원간의 연결이 정착된 후 그것을 매개로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제후 관계의 확산에도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문화원 교류사업은 2007년 총 4개 사업(부산연제, 대구중구, 울산중구, 경기여주문화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6개 사업(은평, 동래, 대구서구, 광주남구, 안산, 당진문화원)을 지원하였다. 각 문화원별로 다양한 가치 사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문화원 행사에 초대, 방문 상호간의 문화적 역량을 교류함은 물론 정보 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문화원 간 자매결연을 맺고 향후 전략적 협조 등을 다짐하는 등 상호 보완 보충 및 학습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 폐지된다고 하니 서운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나은 문화원 지원 사업의 탄생을 예고하는지도 모르겠다. 문화원 커뮤니티 활성화의 시발점을 열어준 교류사업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더욱 훌륭한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

— 이대균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임 —

한국의 제의례(祭儀禮)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의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제의례'를 연재합니다. - 편집자주

6. 기구 배설과 제수 진설의 순서

제의 기구와 제수 진설에는 다음의 순서를 지킨다.

(1) 기구배설(器具配設): 병풍, 교의, 제상, 향안, 주가, 소탁, 모사기, 촛대, 향로, 향합, 축판, 대상, 화로, 세숫대야의 순서로 배설한다.

(2) 설 소과주찬(設 蔬果酒饌): 신위를 교의에 모시기 전에 식어도 상관없는 제수를 다음 순서로 차린다.
• 주가 위에 현주병, 술병, 주전자, 퇴주기를 차리고 소탁 위에 강신뇌주 잔반을 차린다. • 제1열 시접, 고위잔반, 비위잔반, 초접의 순서로 차린다. • 제5열 과실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서 동, 서 동의 순서로 차린다.
• 제4열 포, 생선젓, 나물, 김치, 간장의 순서로 차린다.

(3) 진찬(進饌): 참신(參神)을 한 다음에 뜨겁게 먹어야 할 제수를 차린다. 고기·생선을 재료로 한 천산(天産)은 주인이 남자 집사(陳設)의 협조로, 곡식 채소를 재료로 한 지산(地産)은 주부가 여자 집사의 협조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상에 올린다. 대상에 차린 제수를 쟁반에 받쳐 운반하는 일은 남녀집사가 하고 제상에 올리는 일은 주인과 주부가 한다. • 제3열 서쪽에 육전, 적염, (육회)을 주인이 올리면, 제2열 서쪽에 고위 국수, 비위 국수를 주부가 올린다. • 제3열 동쪽에 어전, (어회, 겨자)을 주인이 올리면, 제2열 동쪽에 고위 떡, 설탕, 비위 떡, 설탕을 주부가 올린다. • 집사가 탕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서 동, 서 동의 순서로 올린다. • 제1열 서쪽에 고위 국, 동쪽에 비위 국을 주인이 올리면 서쪽에 고위 밥, 동쪽에 비위 밥을 주부가 올린다.

(4) 진숙수(進熟水): 유식순서인 합문 계문 후에 주인이 고위 국, 비위국을 내리면 주부가 고위 숭늉·비위 숭늉을 올린다.

(5) 전적(奠炙): 초헌 때 집사가 육적과 소금을 올리고, 아헌 때 집사가 육적을 내리고 어적을 올리고, 종헌 때 집사가 어적을 내리고 계적을 올린다.

7. 제의례의 방위와 참예자 정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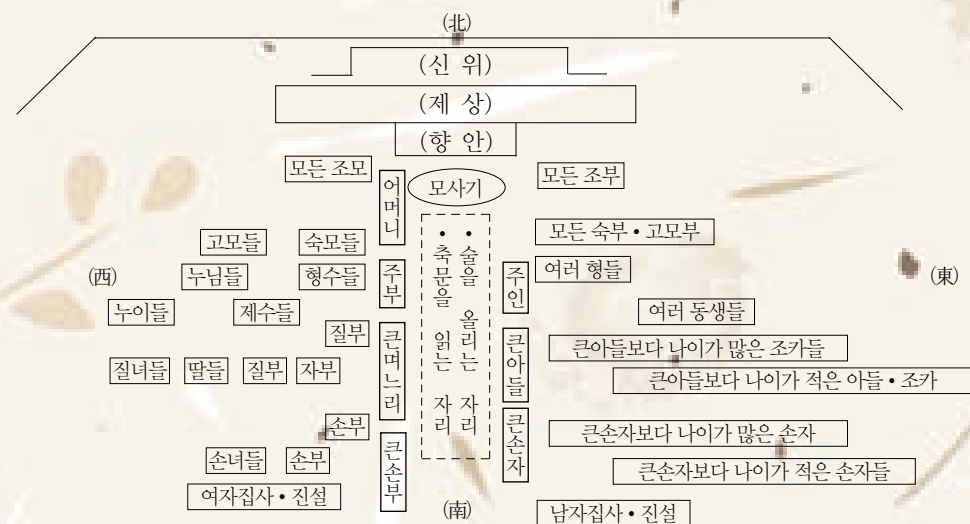
(1) 제의례의 방위: 제의례에서의 방위는 자연의 동서남북이 아니라 신위를 모신 곳을 북쪽으로 설정해 신위의 앞이 남이고 뒤가 북이며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만일 제의례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좌우(左右)라 할 때는 신위의 좌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참예자의 범위: 제의 대상의 남녀 자손과 그 배우자 또는 제의 대상의 유덕(遺德)을 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예한다.

(3) 참여자의 복장: • 남자는 자기 직업, 직급 신분에 정해진 제복(制服)이 있으면 그것을 입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복 정장에 도포(道袍)를 입고 유건(儒巾)을 쓴다. 만일 도포가 없으면 한복정장이나 양복 정장을 입는다. 여자는 옥(玉)색 한복 정장을 입는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한복 정장이나 양복 정장을 입는다. • 남녀 모두 통상복을 입을 때라도 정장이어야 하고, 현란한 색깔이나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4) 참여자의 정위치: • 남자는 중앙 자리의 동쪽에 서는데 신위에 가까운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선다.(丈夫處東 以西爲上) • 여자는 중앙 자리의 서쪽에 서는데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동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선다.(婦人處西 以東爲上) • 주인의 앞은 아무도 설 수 없으나 주부의 앞에는 먼저 번 주부인 어머니만이 설 수 있다.

(장자손인 주인을 기준으로 친척관계를 밝혀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그림과 같다.)



8. 축문(祝文)의 서식

(1) 용지(用紙): 축문은 백색 한지(韓紙)에 먹물로 쓴다. (A4용지에 워드해도 무방하다)

(2) 서식(書式): 가능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음과 같이 내려 쓴다(縱書)

- 첫 번째 줄은 비운다. • '維' '이제' 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 연호의 '단군(檀君)' 첫 자를 '維(이제)' 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 제의 대상을 나타내는 첫자인 '顯' 자는 '維' 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檀' 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 축문의 끝자인 '饗(향)' 자는 '顯' 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 다른 문장은 維자와 같은 높이에서 시작한다. •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부득이 횡서할 때도 위 원칙이 준용되어야 한다)

(3)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4) 기일제사 축문 한문 서식

維

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一年 十月二十三日 孝子 全義鄉校 典教 甲童 敢昭告于

顯考 書記官 禮山郡守 府君

顯 夫人 全州李氏 歲序遷易

顯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16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예시한 축문은 전의향교의 전교인 큰아들 갑동이 서기관으로서 예산군수였던 아버지의 기일제사에 전주이씨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5) 기일제사 축문 한글 서식

이제

단군기원 4341년 10월 23일에 큰아들 전의향교 전교 갑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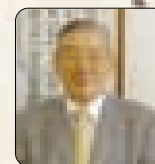
아버님 서기관 예산군수 어른과

어머님 부인 전주이씨 어른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세월이 바뀌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되어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 간 데를 모르겠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을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뻐 여기사

함향하시옵소서. ☸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장



리셉션에서 축배를 든 모습

제 6회 국민의 시낭송의 밤 - 시에서 길을 만나다

국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만드는 시의 밤



인사말을 하고있는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지난 11월 13일(목)에 국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국민의 시낭송의 밤 행사가 열렸다. 작년에 이어 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앞서 공모한 '창작시 공모전 수상자'의 낭송도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는 사람을 너그럽게 하고 때로 힘을 주기도 한다며 시에 대한 애정으로 가을밤의 흥취를 만끽할 것을 당부했다.

국악인 김성녀 씨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 각계각층의 문화계 인사, 국민이 한 데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상생국회와 희망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시심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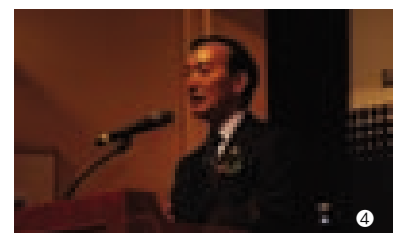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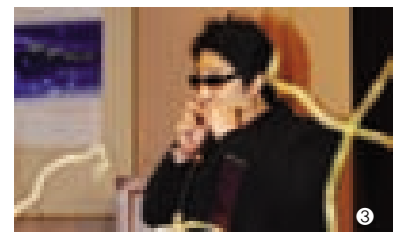


오경현의 모래그림(Sand Painting)

만남으로, 화합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각계각층 인사들

이근배 시인의 겨울행으로 그 포문을 연 시낭송회는 고흥길, 전병헌, 나경원, 최구식, 김재균, 정병국 국회의원과 추영수, 신세훈, 강민 시인들이 참석해 그 자리를 빛냈다. 또한 문화원 가족으로 광주서구의 김종 원장, 성남문화원의 한춘섭 원장, 인천연수문화원의 김원옥 원장, 무안문화원의 서오근 원장이 참여해 시를 낭송했다. 이외에도 육필문학관 노희정 관장, 방송인 임주연 씨도 시를 낭송하여 흥취를 돋우었다. 앞서 공모한 창작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우진 씨와 금상 수상자 이민숙 씨도 수상시를 낭송했다.

이근배 시인의 시작으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은 기형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을, 김종 원장은 자작시 '지금 사라지지 않으려고'를, 추영수 시인은 낭랑한 목소리로 '꽃샘 바람에 꽃보다 먼저 피가 도는 영혼'을 낭독했다. 이어서 전병헌 의원의 김수영의 시 '풀'과 노희정 육필문학관장의 자작시 '강화도 천지송'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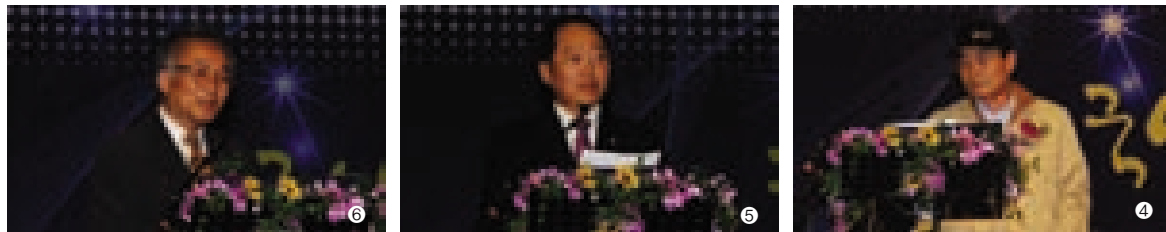


- 1 진행을 맡은 국악인 김성녀
- 2 안형일 선생의 성악공연
- 3 전제덕 씨의 재즈하모니카 연주
- 4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 5 이근배 시인
- 6 김종 광주서구문화원장
- 7 추영수 시인
- 8 전병헌 국회의원

춘섭 성남문화원장은 ‘새 날, 하늘에’ 나경원 의원은 정한모의 ‘가을에’를 낭송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6회 창작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우진 씨의 ‘어머니는 해마다 꽃을 피웠다’의 낭송에 이어, 최구식 의원은 이상국의 ‘아버지가 보고싶다’를 신세훈 시인은 ‘自轉論’를 낭송했다. 김재균 의원은 자작시 ‘모과’를, 김원옥 인천 연수문화원장은 ‘아름다운 숲’을, 강민 시인은 ‘생명의 숲에서’를 각각 낭송했다. 안도현의 시 ‘그대에게 가고싶다’는 정병국 의원의 낭송으로 들을 수 있었고 서오근 무안문화원장은 ‘새벽제비’라는 기발한 시로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방송인 임주연 씨는 고운 노래와 함께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고문의 시 ‘사랑하며, 용서하며-행복하여라, 사랑하는 이들이여’를 낭송하였고, 창작시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민숙 씨는 ‘소파’라는 시를 낭송하며 시에 얹힌 생각에 눈물을 지어 청중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1 노희정 육필문학관장
2 정병국 국회의원
3 나경원 국회의원

4 제6회 창작시 공모 대상 수상자 김우진 씨
5 최구식 국회의원
6 신세훈 시인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의사당의 늦은 밤

한편 Terror J의 대표인 오경현 씨는 모래그림이라는 독특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받았고, 원로 성악가 안형일 씨의 공연은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열정에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또한 재즈하모니카로 유명한 전제덕 씨의 흔들린 하모니카 연주는 관객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성녀 씨는 즉흥으로 논개에 관한 시를 국악으로 풀어내 감동적인 공연을 이끌었다.

요즘 누가 시를 읽냐며 반문하는 시대다. 거리마다 단풍이 선연한 늦가을, 그 밝아진 가을 잎처럼 한구절의 시로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바람이며, 또 몫일 것이다.

김우진 (대상)

어머니는 해마다 꽃을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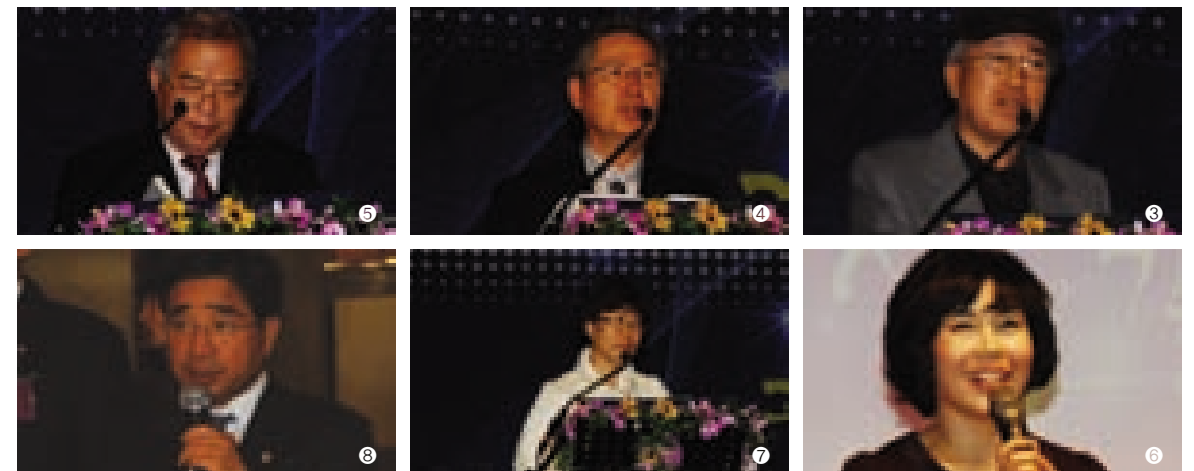
허물어져 가는 옛집, 송송 뿜린 문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 본다 동생과
흠쳐 먹던 밀가루풀, 허기진 내 유년이 물경 손에 잡힌다

찬바람이 불면 입으로 물을 뿌려 묵은 창호지를 걷어내고 새 창호지를
바르시던, 어머니는 도배사였다 국화꽃을 심어 찬바람을 밀어 내셨다
쩍쩍 달라붙는 문고리 위에 국화꽃 두 송이 피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국화꽃 노란 향기가 손에 묻었다 이불 속에서 도란
도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엿들으려 국화는 아랫목까지 발을 뻗었다 문밖
눈오는 소리에 꽃을 활짝 피운 국화꽃, 향기를 맡은 겨울 별들이 밤마다 아
랫목에서 언 발을 녹이고 갔다

어머니는 옛집에서 아직도 창호지를 바르고 계신다

1 김재균 국회의원
2 김원옥 연수문화원장
3 강민 시인
4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5 서오근 무안문화원장
6 방송인 임주연
7 제6회 창작시 공모 금상 수상자 이민숙
8 도재문 국회 입법 차장



이민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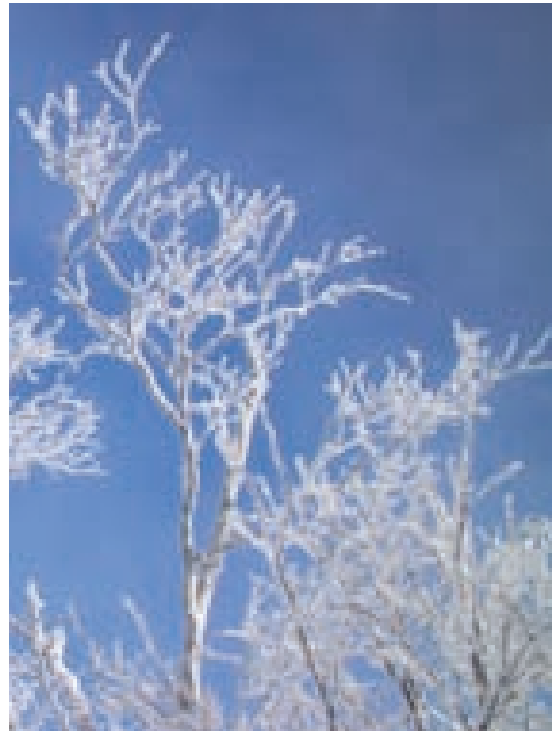
소파

이웃집 이사 갈 때, 버릴 것을 들여놓은
헤지고 낡은 소파, 엄마를 닮아있다.
남겨진 별리의 빛이 빗물처럼 흐른다.

낮설고 어색하게 남의 집에 놓여진
제 혼자 남은 소파, 엄마를 닮아있다.
장남 집 못가고 남은 아흔의 우두커니.

너나 나나 무엇이건 따로 정해 있으랴만
앉으려 만든 소파 위, 엄마는 자고 있다.
밑 빠져 휘어진 것이 엄마 등에 꼭 맞다.

버려질 소파 위에 봄꿈 꾸던 어느 날
구만리 멀고 먼 길 하릴없이 헤맨 그날
목련은 망울을 털어 꿈을 깨고 있었다.



1. 지난 12월 10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실에서 제6회 창작시 공모 수상을 진행하였다.
2. 좌로부터 최영남(문화원연합회회장), 김우진(국회의장),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강별모(문인협회장상)



제주도 및 해외 아리랑 메아리

- 회화작품으로 보는 우리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색주야 딸년아 문 열어라
너기 어머니 친구가 나 여기 왔다

어미니 친구는 내 다 싫소
내 친구 오와야 문 열어 주지

아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제주도 아리랑에서)



제주아리랑1, 72X69, 2008작

이 제주도 아리랑은 고운산할머니 (94년당시 88세.신나라, p.163)가 부른 아리랑이다. 북제주군 조천읍 출신으로 18세때 배운 것으로 전한다.

제주도는 볼거리도 많거니와 文化史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고장이다. 만장굴을 비롯, 한라산 백록담 역세폴 등 자연적 유산 뿐만이 아니다. 민속 풍물 민요 전설 속담 전통 의 식주등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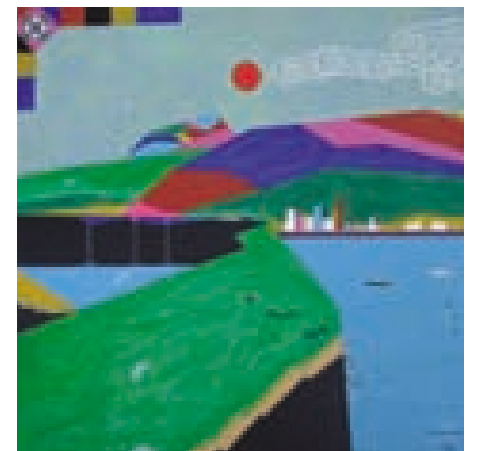
땅 면적은 작지만 축제도 많다. 봄 여름등 계절로 나눈 道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 제주 유채꽃 잔치, 왕벚꽃 축제, 석무문 대할망 페스티벌외.

여름: 제주마라톤, 한라산 철죽제및 마라톤 대회, 자리돔 잔치, 추자 풍어제, 제주 국제합창제, 표선해변 백사 대축제, 생태마을 해변축제 외.

가을: 탐라문화제, 제주 馬축제, 민속축제, 억새꽃 축제, 서귀포 십리축제, 제주 감귤축제의

겨울: 성산 일출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등처럼 풍부하다.



제주 서귀포 아리랑, 2007작

제주도는 바닷물과의 삶, 그리고 어떤 민속적 문화가 특이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다. 따라서 육지에서 보기 어려운 색다른 맛의 성격도 있다.

다음의 그림은 '제주 서귀포아리랑'이다. 싱그러운 바닷물과 항구빛 선박, 그리고 푸른 초원을 달리는 말. 초원뒤로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한라산, 그리고 여러갈래의 폭포등이 제주를 상징해 주고 있다.

또 '제주 아리랑1'은 한라산을 한국의 색깔로 표현해 본 것이다. 한라산은 춘하추동 고운 색채로 다가온다. 철쭉을 비롯해 단풍도 아름답다. 특히 어리목이나 성판악으로 가는길엔 주변 나무들도 이쁘다.

이밖에도 제주엔 제주문화원과 서귀포문화원이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는 해외 아리랑으로 시선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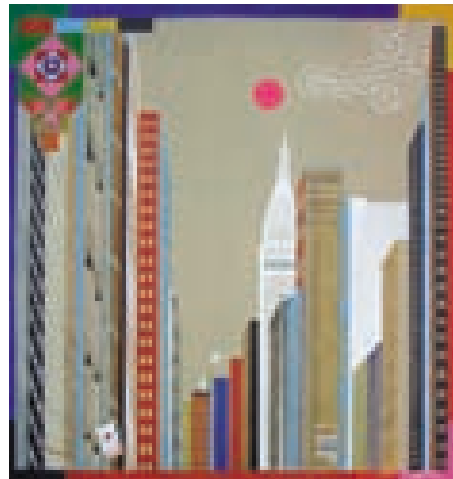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 재외동포로 사는 인구가 2백만명 육박 되지 않을까 한다. 이들의 몸은 타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한국땅에 두고 살아 간다. 조상이 한국이요, 한국 문화속에 숨을 쉬어왔기 때문이리라. 뉴욕에 가도 아리랑은 저절로 따라간다. 한국인의 머릿속에 노상 아리랑 흔적이 있다.

누구나 낯선 땅에 이민 가서 처음엔 말 못할 고생을 한다. 밑바닥의 인생처럼 쓴 맛 단맛 다보는 사이에 아이들은 크고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게 된다. 이런 아픈 과정을 겪는 기간에 고향의 부모 생각이나, 아리랑을 부르며 시름을 잊는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 용기와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바로 아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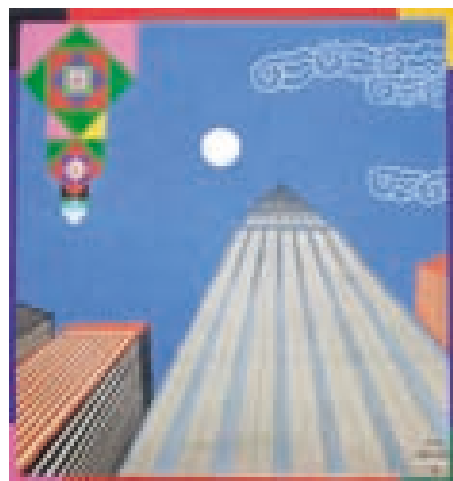
해외동포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 뉴욕의 경우도 50만명이상으로 보고있다. 뉴욕 한인회는 1921년 초기 유학생으로 조직되었다가 1924년 뉴욕한인교민단으로 되었다가 다시 1949년 총영사관 주도하에 한인회가 발족된다. 그후 1960년 창립된 뉴욕한인회는 비영리단체로 지역 직능 봉사 문화 교육등 500여개단체들과 더불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림 '뉴욕아리랑2'은 뉴욕의 한인회 사무국이 있는 거리로서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속에 한국의 아리랑을 그려낸 것이다.

또 그림 '뉴욕아리랑4'도 뉴욕의 밤 하늘을 상징한 것. 고도로 분할된 도심속의 고독이랄까, 외로운 도시에 깊어가는 가



뉴욕아리랑2, 67.5X71.5, 2007작.



뉴욕아리랑4, 67.5X71.5, 2007작.

을의 맛과 더불어 고향의 아리랑을 떠 올리는 작품이다.

뉴욕 한복판에도 한국의 순두부나 칼국수를 먹으면 아리랑이 절로 생각난다.

다음 그림 '시카고아리랑1'은 시카고의 변화가인 미시간 강줄기 옆의 한 풍경이다. 아무리 뉴욕이건 시카고건 한국인의 정서는 서로 마주보며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나를 발견한다. 시카고 한인회도 1962년 발족, 1970년대에 크게 유입되어 현재는 25만의 동포가 열심히 살아 가고있다.

그림 '시카고아리랑4'도 미국 시카고를 우리의 아리랑으로 각색한 형태로 만들었다. 우리의 얼과 색깔이 스며있는 시카고의 이미지다.

다음 로스엔 젤레스도 많은 한인 동포들이 거주한다. 1962년 남가주한인센터가 결성되었다가 72년 남가주한인회로, 84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로 개명, 현재 62만5천여 동포가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다음 유럽으로가본다. 유럽중 우선 독일이 파독 광부와 간호원 관계로 일찍이 우리와 인연을 맺어왔다. 뮌헨 한인회는 75명으로 등록되었으나, 거주자는 약 5백여명 정도로 추산한다.

한인회역사는 30년되었으나, 2004년에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체 등록된 공익 단체다. 지난10월11일 저녁 한가위 때는 뮌헨의 슈바빙에 크로이츠 교회에서 추석 축제때 사물놀이를 벌이는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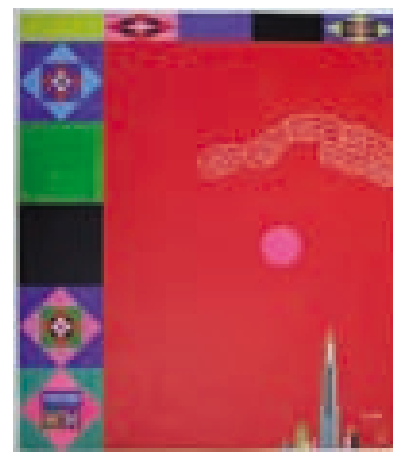
그림 '뮌헨아리랑2'은 뮌헨 시청옆에 있는 쌍둥이 교회를 상징한 그림이다. 뮌헨의 밤은 한국의 아리랑 달밤과 같은 기분으로 묘사시켰다. 이 그림외에도 '뮌헨아리랑1' '휘센아리랑'도 독일속의 아리랑을 그려낸 회화 작품들이다.

독일 전체를 아우르는 재독한인연합회는 전독일 38개 한인회의 재독교민 3만5천명중 중부독일이 대부분 차지하고있다.

중국과 일본에도 아리랑은 계속 이어져 오고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채 두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동포들의 아리랑은 더절실했을 것이다. 상해의 광복군 아리랑이나, 종군위안부의 처절한 아리랑도 다 우리의 핏 속에 아리랑은 연연히 이어져 오고있다. 광복군 아리랑은 중국과 국내 춘천에서 활동하던 내용을 그림으로 작업했다.



시카고아리랑1, 72.5X69, 2007작.



시카고아리랑4, 67.5X79, 2008작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길림성의 연길시에 한국동포가 많이 거주한다. 이들은 선조들이 들려주던 아리랑이 희미한 옛날기억으로 전달되었지만 다시 불려지면서 새로운 노래도 만들어 지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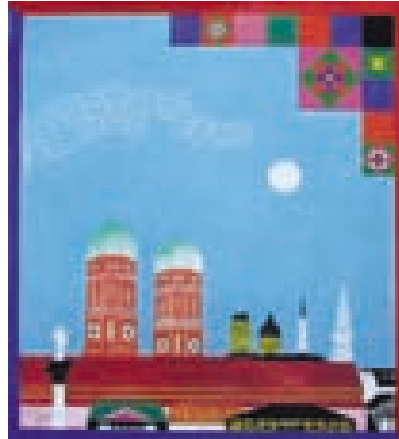
주로 연변에서 불려지는 ‘기쁨의 아리랑’ ‘새 아리랑’ ‘어랑타령’ ‘얼쑤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아리랑연곡’ ‘장백의 새아리랑’ 등(신나라.p.141)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하나를 본다.

‘기쁨의 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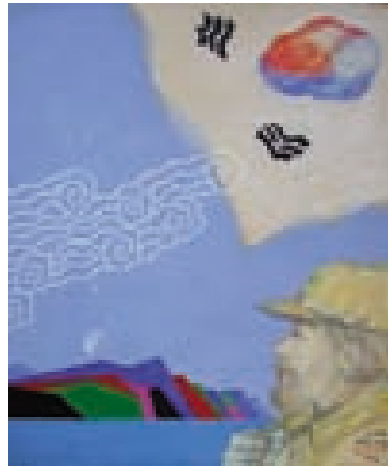
울며넘던 피눈물의 아리랑 고개
한번 가면 소식없는 탄식의 고개
앞고 지고 쫓겨서 흘러가더니
기쁨 싣고 때를 지어 뒤 넘어 오네
어서 넘어라 어서 넘어라 에헤에요
기쁨 싣고 돌아 오는 아리랑 고개
(중국에서 불려진 아리랑 중에서.)



김정 원로화가, 서양화가



만헨아리랑2. 69X74. 2008작.



광복아리랑. 8호.37.9X45.5. 2007작.

서울시지회

2008 서울문화가족 길쌈문화축제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지회장 김영섭)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2008 서울문화가족 길쌈문화축제를 열고 많은 시민들과 서울시 각 문화원 수강생, 청소년들이 어우러져 한마당 길쌈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는 문경문화원과 원주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는데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와 목화체험마을 지도강사를 각각 초청하여 씨아, 활, 물레, 베틀, 다듬이 등을 다루는 시범을 보이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체험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흥겨운 축제마당이 되었다.

이날 축제 개막에 즈음하여 김영섭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잠단과 선농단이 갖추어진 서울에서 조상들의 일상과 손길이 묻어 있는 길쌈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서울 각 문화원 수강생들이 길쌈솜씨를 겨루는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대전광역시지회

대전문화원의 새로운 역할찾기 세미나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지회장 조성남)는 11월 26일 오후 3시부터 대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전광역시와 대전예총, 대전·충남민예총, 대전문화연대 후원으로 ‘대전문화원 새로운 역할찾기’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조성남 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나에서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이종인 소장의 ‘지방문화원의 주체적 기본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 아래 동구문화원 지하영 사무국장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중구문화원 최창희 사무국장의 ‘원도심 문화 활동을 통한 대전 중구문화 활성화’, 서구문화원 송재민 사무국장의 ‘지역주민의 문화 메카 <문화원>’, 유성문화원 이준아 사무국장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서비스’, 대덕문화원 임창웅 사무국장의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 문화원’이라는 주제로 각각 사례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종합토론 직전에 멘토 패널로 참가한 외국어대 문화콘텐츠학과 강진갑 교수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정희섭 소장, 음악평론가 문옥배 씨, 리서치 21 신동호 대표로부터 문화원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상북도지회

독도지킴이 수토제도에 대한 재조명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김중우)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북 울진군 소재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강당에서 제1회 학술대회로 '독도지킴이 수토제도(搜討制度)에 대한 재조명' 심포지엄을 가졌다.

울진군과 울진문화원,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영남대 김호동 교수의 '조선시대 수토제도 확립과정'을 주제로 발표를 한데 이어 한국문화원연합회 김중우 경상북도지회장의 '조선시대 공도(空島) 수토정책 일고찰'과 울진군청 심현용 학예연구사의 '조선시대 울릉도, 독도 수토관련 울진 대풍헌소장 자료소개' 울릉문화원 이상인 원장의 '한국의 독도 영유에 관한 역사적 개관', 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연구원의 '장한상의 수토와 수토제도의 추이' 등에 대한 학술발표가 각각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김중우 경북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선시대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고 그곳 대풍헌(待風軒)은 울릉도로 떠나는 시발점으로서 그 유적과 유물이 현존하고 있어 수토정책과 대풍헌 유적지인 울진에서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정학적으로 준 일련의 행동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듯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특히 근래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보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때에 독도수호와 독도지킴이 수토제도를 재조명하는 것은 시위적절하다고 말했다.



제17회 경상북도풍물대축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김중우)는 10월 16일부터 이틀간 경북 군위체육공원에서 제17회 경상북도풍물대축제를 열었다.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와 세인트웨스턴C.C 협찬과 군위군·군위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김중우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북 23개 시·군 문화원이 풍물계승·보존·창작에 문을 열고 자축하는 마당에 각 문화원을 대표하여 참가한 풍물단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관광용 경북지사와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박영언 군위군수, 박수호 군위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축제 첫날은 전년도 장원팀인 문경문화원 풍물단의 시연에 이어 울진 파도풍물단, 영양 해달피 풍물패, 포항문화원 풍물단, 봉화군 하늘지기 땅지기, 경주농협풍물단(차상), 영천문화원 농악단, 군위우보풍물단, 별고을풍물패, 구미시공단풍물단, 경산시농악보존연합회 경산보인농악단(장원), 청송 주산지풍물패, 김천문화원 여성풍물단, 칠곡문화원 풍물단, 상주 놀이패 신명, 영주 단상사천농악보존회, 영덕 대개각시풍물패, 안동 소리패 풍물패, 청도 한마음농악단(차상), 의성지킴이풍물단, 고령 가갯고풍물단, 예천 흑음풍물단 순서로 각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연에 임했다.

둘째 날은 청소년부 경연으로 전년도 장원 팀인 경주 아화중 풍물패의 시연과 영천전자고 풍물부(장원)의 경연에 이어 구미시 산동초교 풍물단, 군위 부계대울어린이 풍물단(차상), 구미 무을중 풍물단(차상), 경산 중앙초교 풍물단, 김천 개령초교 빛내농악단, 의성 다인초교 풍물단, 고령 우곡중 풍물단 순으로 경연이 펼쳐졌다.



전라남도지회

제20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지회장 정원강)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영암문화원 공연장에서 전라남도 후원으로 제20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목포대 행정학과 양승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박민서 교수의 '실버문화가 만드는 희망과 아름다운 은빛세상'이라는 기조발표가 있음 다음 동시대 사회복지학과 조 준 교수의 '초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올바른 문화복지 추진방안', 목포시 노인복지관 최정민 사회복지부장의 '고령사회와 실버세대의 사회참여 활동', 한국문화원연합회 장상호 총무국장의 '실버문화학교와 지방문화원의 역할'의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으며 신안문화원 최성환 사무국장과 영암문화원 오치선 사무국장으로 부터 실버문화학교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음 다음 종합토론이 있었다.



영암문화원 오치선 사무국장으로 부터 실버문화학교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음

전라북도지회

제16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지회장 이복용)는 10월 22일 오전 전주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민속문화의 보존 방안을 집어보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전북의 민속문화 보존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6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좌장을 맡은 이복용 지회장의 사회로 원광대 박순호 명예교수의 '전북 민속자를 발굴 지도에 따른 여러 문제점', 전주대 송화섭 교수의 '전북민속 문화의 전승 현실과 보존방안', 진안문화원 최규영 원장의 '민속신앙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 주제별로 김복현 익산문화원장과 전북중앙신문 김영애 문화부장, 이병재 남원문화원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인천광역시지회

이탈리아의 달 행사 공동 개최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허문명)는 10월 21일 오후 4시에 개항기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클럽이었던 (구)제물포구락부에서 이탈리아의 달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탈리아는 일찍이 인천에서 조·이통상수호조약을 맺은 후, 꾸준히 교류를 해 왔으며 이번에는 인천시민들에게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탈리아의 성악 공연을 비롯한 알렉산드로 바르비야노 디 벨조이오스 씨의 사진전 '한국 : 불가능한 여행?'도 함께 열었다.



성동문화원

제2회 성동구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

성동문화원(원장 정진섭)은 10월 24일 성동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순수 아마추어 전통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소월아트홀에서 제2회 성동구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예술,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민속예술입니다'를 모토로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전통민속예술동호인들의 참여기회를 확충하고 전통민속예술의 저변확대와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서 초등학생들로부터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무용, 풍물, 경기민요, 전통 타악 등 13개 팀 2백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



야금 병창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등의 초청 공연으로 신명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강동문화원

제2기 강동문화대학 수료식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은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아래 지난 9월부터 강동문화대학을 운영해왔다.

수강생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영희 명창의 '우리소리를 찾아서'와 서희태 예술감독과 고진영 성악가의 '세계의 가곡을 찾아서' 등을 각각 공개강좌로 진행함으로써



높아져 가는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왔으며 강영숙 원장의 '품격과 인품', 김홍신 소설가의 '문화는 무엇인가', 이명옥 성악가의 '음악사와 감상법', 김후란 시인의 '시를 사랑하는 마음', 이태호 교수의 '옛 그림의 아름다움-풍속화', 기혜경 학예연구사의 '권력과 영광의 예술', 김갑수 교수의 '세계음악여행', 이원달 원장의 '그림사랑' 등 다양한 문화예술강의가 있었다.

공주문화원

2008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옥)은 11월 11일부터 3일간 공주시 관내 학교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2008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을 가졌다.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투병생활에 지쳐있는 환우들을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이



행사는 흥과 신명이 넘치는 옷다리 사물놀이를 필두로 가야금 연주, 한국무용, 대금·해금 연주, 밸리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의 이해와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동대문문화원

가을 역사문화탐방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은 11월 8일부터 이틀간 회원을 대상으로 무주와 남해를 거쳐 고성에 이르는 가을 역사문화탐방을 가졌다. 탐방 코스는 전문 문화해설사를 초빙한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의 사고인 무주 정상산과 안국사를 견학하고 전망대에 올라 가을 풍경을 즐기면서 호연지기를 키웠다. 남해에서는 캠프파이어와 함께 풍등 날리기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했다는 '보리암' 답사에 이어 고성 공룡박물관 견학을 끝으로 선조들이 남긴 지혜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가졌다.



완도문화원

청소년 지역문화유적탐방 및 문학기행 글짓기대회

완도 문화원(원장 김희문)은 지난 10월28일 08시부터 17시까지 완도 관내 체도에서 군외중학교와 청산중학교 학생 및 교사 일반140여명을 초청하여 완도향토문화 유적탐방 및 문학기행 글짓기 대회를 성황리에 끝냈다. 문화원이 매년 실시해온 이 행사는 도서벽지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 향토문화 유적지현장을 견학하고 교육하므로써 청소년들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역사적전환기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사명의를 갖게 했으며 마지막시간에는 청해관(객사)앞에서 당일견학 교육받은 내용을 주제로 글짓기 백일장을 열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푸짐한 상품과 상장을 주어 호평을 받았다.



성북문화원

제2회 만해예술제

서울 성북문화원(원장 천신일)은 동방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10월 24일 동방대학원대학교 강당(사자후전)에서 성북구의회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성북구사암연합회 후원으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나라와 민족 사랑의 높은 사상과 정신을 추모하고 그 뜻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동방문화를 창달한다는 목적 아래 제2회 만해예술제를 열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투신, 생명사랑으로 자유와 평등사상의 구현을 위해 일생을 마감하였다. 선생이 말년을 보내고 생을 마친 성북동의 의미와 선생의 높은 뜻을 받들고 기리고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남문화원

제10회 강남미술대전

서울 강남문화원(원장 김성옥)은 10월 15일 문화원 3층 강당에서 제10회 강남미술대전 시상식과 함께 5일간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가졌다. 강남구 주최, 강남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화 부문에 이영지 씨 작품과 서양화 부문에 박은희 씨 작품 '축제'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으며, 서양화 작품 'Mother'와 '자연의 신비'가 각각 장려상과 특별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30점의 특선 작품과 96점의 입선 작품으로 전시장을 매웠다. 서양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박은희 씨는 '유럽 여행 중 도심지 한 성당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 화폭에 담아보고자 하였고 작품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자 구상 위주에서 조금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마포문화원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서울 마포문화원(원장 이선재)은 10월 16일부터 이틀간 월드컵 평화의 공원에서 1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모인 가운데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열었다.

매년 마포구민의 날이 속한 10월에 마포나루를 통하여 새우젓 배들이 드나들던 마포의 정취를 재현함으로써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문화·관광객으로 정착시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축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추억의 마포나루 장터 재현 및 체험행사, 유명 산지 새우젓 및 젓갈류 판매장, 제15회 구민의 날 시상식 및 구민상 시상식, 한의사와 함께하는 진맥체험, 마포학당(붓글씨 및 동양화 그리기 체험), 추억의 먹거리 장터, 삼개 글짓기, 옛 마포사진·그림전시회, 마포나루 포토존 등 문화행사, 각 동별 대상 수상자들이 모여 노래실력을 겨루는 마포구민 노래자랑 공개방송 등에는 유명가수들과 함께 각종 응원전도 볼거리였다.



부평문화원

2008인천시민 문화예술경연대회

부평문화원(원장 허문명)은 10월 12일 오후 1시부터 부평역광장에서 2008 인천시민 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가졌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축제를 통한 배움의 흥미 유발과 범시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의 기초를 이루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적극적인 문화 예술 발표의 장을 마련,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는 뜻을 두고 있는 이 대회는 그룹사운드를 비롯한 스포츠, 응원, 댄스, 힙합 등의댄스부문과 전통문화 부문, 수상작 전시를 겸한 사진공모전에 이르기까지 우수 동아리 초청 경연을 펼친 결과 전통문화 부문의 ‘소리오름’이 종합대상을 차지했으며, 댄스 부문에 ‘가정 청소년 문화의 집’ It's our feeling, 그룹사운드 부문에 ‘엔드페이드’, 사진공모전 부문 안현준 씨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룹사운드 부문 ‘그린비행’과 대스 부문 ‘동감패밀리’, 전통문화 부문 ‘남동국악봉사단’, 사진공모전에 박지수 씨가 각각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관악문화원

제21회 낙성대 인헌제

서울 관악문화원(원장 김윤철)은 10월 18일 낙성대공원에서 관악구와 공동으로 이 고장에서 배출한 고려 명장 인헌공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지역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구민이 참여하는 전통문화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21회 낙성대 인헌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감찬 장군 승리 재현 가두행사와 추모제, 수방사 군악대의 축하공연과 퓨전타악그룹 타오공연, 전통무술 시범공연, 구민노래자랑에 이어 부대행사로 활 만들기와 활쏘기 체험, 추억의 등잔사진 전시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독후감대회, 승마 시승체험, 전통음식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연수문화원

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

인천 연수문화원(원장 김연옥)은 문화학교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학습동아리의 실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봄부터 ‘책 읽는 연수’의 동화속 전통문화나들이, ‘어울림’의 사물놀이 공연, ‘연지모’의 한지공예 소품만들기, ‘한음회’의 가야금 공연, ‘벨로체 기타 앙상블’의 클래식 기타 공연, ‘한소리’의 단소·소금·대금공연, ‘코스모스화’의 꽃장식 등 동아리 회원들은 문화적으로 혜택이 적은 지역을 찾아 문화원에서 배운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마산문화원

제14회 마산문화축제

마산문화원(원장 임영주)은 10월 1일부터 1개월간 문화원과 산호공원 일원에서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마산교육청의 후원으로 제14회 마산문화축제를 열었다.

축제기간 주요행사는 마산성신대제를 복원하여 마산과 마산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성신대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마산성신대제의 복원모형 연구에 대해 별신대 세우기와 선유락, 성신제당 제의, 별신굿 등을 중심으로 노성미·이경미·김지민 씨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시(詩)의 거리를 기념하는 제37회 한글백일장이 초·중·고·일반부로 나누어 치러졌으며, 마산영화자료관에서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1950년대 외국영화포스터전시회와 추억의 한국영화감상회를 갖고 영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폭넓은 문화향유를 접하는 한편 마산씨네마 7개관에서는 문화가족을 위한 좋은 영화감상회에 국내외 우수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했다.

10월 25일 문화원 강당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및 일반부로 구분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충효사상, 청소년범죄예방,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등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마산문화옹변대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올림픽기념공연관에서 문화학교 발표공연을 비롯하여 대마도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취지에서 해양법 및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김영구 박사를 초청, 역사문화강연회를 가졌으며 향토작가 회화전과 대마도 속의 우리 역사문화사진 100여점이 전시되는 등 장장 한달 간의 축제기간을 통해 마산시민의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진주문화원

제26회 전국 한시백일장

진주문화원(원장 이병찬)은 지난 10월 6일 오전 10시 진주성 속 석루 누각에서 제26회 전국 한시백일장을 가졌다.

정영석 진주시장이 명예대회장으로, 이병찬 원장과 한기인 진주문화원 생활연구소장이 대회장과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아서 진행한 이날의 백일장은 제58회 개천예술제 기간에 개최되는 학문과 예술의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로서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치러졌다.

시제는 주일방의기사(秋日訪義妓祠)로 운자는 각도 대표들이 한자씩을 지정하여 추(秋), 유(流), 주(洲), 유(留), 수(收) 5자로 채택 진행하였는데 160여 명의 전국 한시 애호인과 한문을 배우는 대학생 50여 명이 참가하여 자신의 한문 능력과 한시 기량을 겨룬 결과 일반부 장원에 이종영 씨와 차상 김교회 씨, 차하 박학규 씨가 차지했고, 학생부 장원에는 손백균 씨와 차상 김상홍 씨, 차하 우성준 씨 작품이 각각 당선되었다.



남원문화원

제3회 양금신보 학술대회

남원문화원(원장 이병채)은 10월 20일 오후 3시부터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남원시와 고하문예관 후원으로 국립민속국악원과 공동으로 ‘양금신보(梁琴新譜)가 음악사에 미친 영향과 문학적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양금신보’란 한국의 100대책으로 선정, 한국국악문화를 있게 만든 조선시대 국립장악원 악사 양덕수 선생이 집필한 남원 최고의 거문고 고악보이다.

학술적 토론과 문학적 담론을 통해 전통문화 선양의 당위성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판소리 본고장인 남원의 국악 위상을 높여 나감으로서 남원이 지니고 있는 문화자산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음악을 공부하는 세대에게 이어져 지역문화로 발전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학문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마련한 이 대회에서 경북대 이동복 교수와 고려대 김기형 교수로부터 ‘양금신보의 음악사적 성과와 가치’와 ‘양금신보의 가치적 활용연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하문예관 최승범 관장과 남원문화원 노상준 남원학연구소장과 서남대 서정섭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양금신보가 음악사에 미친 영향과 문학적 가치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자유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광주 북구문화원

2008 시가문화관 문화행사

광주 북구문화원(원장 이종철)은 10월 25일 광주광역시 충효동 왕버들 주변에서 무등산 시가문화관의 중심점이 되었던 정자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가락을 재연하여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취지아래 시조·창·판소리 공연과 함께 무등산 시가문화관의 사립정신을 되살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복구의 문화적 전통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어린이 그리기·글짓기대회를 비롯해서 동·서양화가 등 30여 명이 참가하여 무등산 시가문화관 스케치, 완성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 11월 7일 오후 4시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시가문화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도 열렸는데 시가문화의 전문가를 위시해서 학생과 주민, 공무원 등이 참가하여 시가문화와 양산보의 작품세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군산문화원

쌍천 이영춘 박사의
역정, 의료, 봉사에 대한 재조명

군산문화원(원장 이복웅)은 10월 31일 군산시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군산시와 쌍천 이영춘 박사 기념사업회, 군산의사회, 군산미래신문 후원으로 '쌍천 이영춘 박사의 역정, 의료, 봉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이복웅 원장은 한국농촌 위생의 선구자인 쌍천 이영춘(雙泉 李永春) 박사는 1929년 세브란스전문을 수석으로 졸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고자 현장에서 의료 봉사에 헌신하다가 1980년 군산에서 영면했다고 쌍천 박사의 인생역정을 회고하면서 그의 고귀한 의료, 봉사, 역정을 재조명코자 이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 소신탁 명예교수의 '이영춘 박사와 한국의 기생충', 연세대 박윤재 교수의 '농촌위생 문제 및 연구소', 재단법인 농촌위생연구원 이주민 이사사의 '이영춘 박사와 어린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지정토론으로 나선 전북문화연구소 이치백 소장과 군산시의사회 최병상 회장, 향토사학자 김양규 씨로부터 각각 주제별 토론이 있었다.



장흥문화원

2008다문화가족
동화읽기 발표회

장흥문화원(원장 김기홍)은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장흥 청소년수련관에서 장흥군과 장흥 외국여성한국어교육원, 어린이독서연구회 후원으로 장흥청소년수련관과 공동으로 2008 다문화가족 동화읽기 발표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자 가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말과 글을 빠른 시일 안에 습득하게 하고 어머니 나라의 동화 읽기를 통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가족이 더욱 화목해 지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고국을 떠나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각국 이민자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외로움과 정감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어머니들을 비롯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눈 발표자 및 관중 모두가 가슴을 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천문화원

제30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진천문화원(원장 남명수)은 10월 17일부터 3일간 백곡천 둔치를 비롯한 진천읍 일원에서 제30회 생거진천(生居鎭川)문화축제를 가졌다. 축제 하루 전날 상구마을에서 열린 정호제를 시작으로 첫째 날은 제기차기, 줄다리기, 윷놀이, 팔씨름 등 읍면 민속경연대회가 열렸으며 가장행렬, 새싹들의 깜찍 재롱, 불꽃놀이, 군민 노래자랑이 펼쳐졌으며 둘째 날에는 백일장과 어린이 사생대회, 풍물굿판 동동(同動)공연, 생거진천 쌀축제, 전국관상어 품평회,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축제 마지막 날은 전통 혼례식으로 국제결혼, 실버 가요제, 장사 씨름왕 대회, 평양민속예술공연을 비롯해서 우석대 예술공연 팀의 축하공연과 지역 예술동아리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체험마당에서는 도자기, 솟대, 나무 목걸이, 열쇠고리, 천연비누, 가족 얼굴만들기와 추억 사진 담아가기, 사진전시회, 서각, 풍경화 그림전 등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가 있었다.



괴산문화원

가을 역사문화탐방

괴산문화원(원장 이재출)은 지난 10월 12일 문화원 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주시 공주박물관과 1971년 7월에 발굴된 바 있는 벽돌무덤으로 많은 유물이 출토된 무령왕릉과 백제 때 웅진성으로 불리던 백제 도읍지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2,450m 크기의 성의 둘레를 가진 당시 백제의 중심산성인 공산성 일대와 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을 참관하는 가을 역사문화탐방을 가졌다.



부천문화원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부대공연

부천문화원(원장 박형재)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부천영상문화단지과 상동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기간 중 부천문화원에서는 10월 19일 저녁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휘모리무대에서의 봉산탈춤 공연과 10월 26일 오후 같은 단지 내 한누리마당에서 석천농기고두마리 일곱 마당 완판 재연 공연을 가졌으며, 엑스포 기간 중 부천문화원의 궁중자수, 사군자, 한지공예 작품전시회를 열고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상동호수공원 내 전통공예 체험장에서 부천공예체험 한마당을 펼쳐 엑스포를 참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흥문화원

2008 제18회 연성문화제

시흥문화원(원장 정상중)은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시흥시 옥구공원 일원에서 '2008 제18회 연성문화제'를 가졌다.

이 기간 중 인천문화재단 김락기 기획운영팀장과 지역문화연구소 양선아 연구원이 '20세기 초 호조별 관련자료와 그 내용', '시흥지역 방죽논의 관리방식'을 각각 주제로 한 '호조별 강연회'를 비롯해서 겉치레 무대 행사를 지양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전통 고유문화 전승의 취지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10월 11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장에서 출발한 '관홍상제 거리행렬'과 사진으로 보는 시흥역사, 전통혼례, 꽃상여, 전통 장례의 재연을 비롯해서 800여 명이 참여, 종이컵으로 태극기 만들기, 연꽃무늬 기와 탁본체험, 기계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다듬이 체험, 맷돌 돌리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축제기간 이어졌다.



남양주문화원

제113주기 홍릉(명성태황후)기신제 봉행

남양주문화원(원장 이창수)은 지난 10월 8일 정오를 기해 금곡동 소재 홍릉에서 제113주기 명성태황후 기신제 봉행을 가졌다.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존재 가치를 높여 시민의 문화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존재만 하는 소극적인 자산에서 활용하는 적극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시민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남양주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금년부터 관내 능 기신제 봉행을 남양주시가 후원하고 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새롭게 거행기로 결정하고 그 첫 번째 행사로서 명성태황후 기신제를 봉행하게 되어 많은 관광객에게 황후의 제사 모시는 과정을 관람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인천 남동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체험

인천 남동문화원(원장 김기수)은 10월 24일부터 인천광역시와 남동구 후원으로 이틀간 화성시 용주사에서 1박 2일로 발우공양, 타종, 참회, 참선, 다도, 숲길 걷기, 새벽예불 등의 체험을 통하여 산사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하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 위해 산사체험을 가졌다.



대전 대덕문화원

‘회덕 작은 도서관’ 개관

대전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현)은 10월 24일 어린이와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덕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회덕 작은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08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문예진흥기금과 구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기존 문예회관 내 교육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 작은 도서관과 정보센터실, 2층에 자료실 등으로 구성, 1만 여권의 도서와 컴퓨터 20여 대를 설치하였다.

이날 개관 행사에는 ‘가을 책과 book의 만남’을 주제로 각종 체험행사와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신화이야기’ 등의 공연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대덕문화원에서는 앞으로도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무료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지역문화의 중심센터로 자리 잡아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명문화원

2008 도토리문화장터 나눔의 놀이터, 자연의 놀이터

광명문화원(원장 안병식)은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명문화원 앞 운동장과 야외공연장에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후원으로 2008 도토리문화장터를 열었다.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광명문화원의 어린이 문화축제 ‘도토리문화장터’는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어린이 문화축제이다. 어린이들이 직접 가게 주인이 되어 홍보와 판매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경험해 보는 벼룩시장과 체험행사를 비롯한 어린이 공연 및 전시행사 등이 펼쳐졌다.

기획마당에서는 곤충체험과 수생생물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느끼면서 자연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어린이 벼룩시장인 나눔마당으로 도토리하우스에서는 스스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살아있는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실질적인 경제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벼룩시장을 통하여 아껴 쓰고 나누어 가지는 생활을 익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손수건을 이용한 핸드페인팅, 매직풍선, 소원나무 열매달기, 요구르트 병을 이용한 핸드폰 줄 만들기, 대형 비눗방울 놀이, 방문패 만들기, 소금병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체험마당을 가졌다.

또한 ‘도토리 끼 재기!’의 공연마당에서는 광명문화원 어린이문화학교 강자들이 그동안 배워온 실력을 뽐내보는 발표회 시간과 초청공연이 펼쳐졌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시장 끼를 면할 수 있도록 먹거리마당 ‘도토리 묵! 찌! 빠!’가 주말 오후의 출출한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줌으로써 명실 공히 금강산도 식후경이었다.



순천문화원

제13회 청소년풍물경연대회

순천문화원(원장 유길수)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팔마문화제 특설무대에서 순천시와 순천시교육청, 순천예중의 후원과 순천시민의 날 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청소년풍물경연대회를 주관하였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8순천시민의 날 팔마문화제와 연계하여 풍물경연대회를 가짐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기하며 건전한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전라남도 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농악과 창작 풍물굿·사물놀이 경연을 펼친 결과 순천 장춘초등학교 팀과 순천 매산중학교 팀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순천시교육청 교육장상을 수상했으며 광양북초등학교 팀과 여수 여도중학교 팀이 각각 우수상으로 문화원장상을 받았다.



청송문화원

청송문화사과축제 2008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목 청송문화원장)는 10월 24일부터 3일간 청송사과공원과 청송민속박물관 일원에서 ‘사과로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청송문화사과축제 2008’을 개최했다.

행사 첫날은 풍년기원제와 함께 사과 왕 시상 및 청송문화상 시상이었으며 둘째 날에는 농악경연대회와 민속씨름대회, 프랑스사과요리 전시 및 시연회, 전통혼례 재현을 가졌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사생대회와 백일장, 민속 장기대회, 청송사과가요제가 열렸다.

이 밖에도 테마행사로서 사과연극제와 사과 조형물 경연대회를 비롯해서 고향장터, 향토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가졌다.



광주 동구문화원

제4회 2008전국학생미술대회

광주 동구문화원(원장 류경성)은 지난 10월 4일 광주광역시 금남로공원에서 '아시아와 광주'라는 주제로 제4회 2008전국학생미술대회를 가졌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기 표현이 강한 행위로서 자기 생각한 내용을 색채와 형태로 그리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 경신여고 박지우 학생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을 수상했으며, 중앙어린이집 서다윗 어린이와 광주예고 이새희 학생, 소호미술학원 임진표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광주광역시 상을 받았다.



이천문화원

제22회 설봉문화제 '허수아비 가족축제'

이천문화원(원장 이상구)은 10월 17일부터 이천시 설봉공원과 장호원 일원에서 민속행사와 문예행사, 청미문화제 등 민속축제를 중심으로 설봉문화제가 열렸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18일 설봉공원 놀이마당에서 가족단위 50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의 아름다운 상상'이란 주제로 '허수아비 가족축제'가 열렸는데 3대 가족이 함께 참가한 대부분의 팀들은 잊혀져가는 풍습을 되살리고 농촌풍경을 재현하는 체험마당으로 펼쳐졌다. 각 팀이 정성을 쏟아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를 상대로 장난도 치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낸 허수아비 가족축제에서 '행복한 가족 다문화가정'이란 주제로 허수아비를 만든 이동호 씨 가족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가을 산책'의 김형식 씨 가족, '키다리 아저씨'의 한두희 씨 가족, '풍년 딱 걸렸어'의 고원식 씨 가족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날 제작한 허수아비로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 기간(10월 23일부터 4일간) 전시회를 가져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옛날 농촌풍경을 떠올려주는 추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주문화원

제7차 문화답사 - 고령

전주문화원(원장 서 승)은 10월 24일 경북 고령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답사를 가졌다.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대가야박물관과 양전동 암각화를 비롯한 선사시대의 유적, 그리고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해 놓은 우륵박물관, 대가야의 원형봉토분으로 지산동 주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고분군을 둘러보고, 가야대학교 내에 있는 고천원(高天原)* 고지(故址)를 둘러보았다.

*고천원(高天原) : 일본어로 '타카마가하라'라고 일본 천황계가 강림한 곳이라는 논문이 발표(1997)됨으로서 매년 4월 4일을 기해 일본인과 국내 인사 등이 모여 고천원제가 열린다.



성남문화원

학술회의 - '판교 및 도촌지구 발굴 문화재의 보존방안'

성남문화원(원장 한준섭)은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판교 및 도촌지구 발굴 문화재의 보존방안'에 대한 학술회의를 가졌다.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문수진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 한국문화보호재단 윤선영 연구위원이 '판교 삼평동 지역 출토유물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고려문화재연구원 안성민 연구원의 '판교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김주홍 학예사의 '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발표에 이어 국립민속박물관 김시덕 학예관, 신구대 조남두 교수, 경원대 최명숙 교수, 동서대 전봉구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그동안 성남문화원은 '남한산성과 삼학사' '둔촌 이 집 선생' '여류문사 강정일당' '백현 이경석과 금릉 남궁철' 등의 역사인물 재조명과 함께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삼죽오와 성남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 성남지역 정체성을 확인하는 연구사업을 펼쳐왔다.

한준섭 원장은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 결과, 구석기·선사시대·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전시기에 걸친 매장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 있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해 시민의 관심과 내고장 향토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이 살기 좋은 행복의 도시이며 문화적 자긍심을 지닌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문화원

함양문화유적답사

광주 남구문화원(원장 이종일)은 10월 25일 경남 함양군 일대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함양문화유적답사를 가졌다.

조선시대 짝 안동, 우 함양이라 할 만큼 함양은 학문과 문벌이 대단했던 고장으로서 양반이 많아 서원도 많고 운치와 기품이 있는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라 진성여왕 때 함양태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 선생에 의해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 인공림인 상림(上林)과 함화루, 학사루, 문창후(文昌候) 선생 신도비를 비롯해서 정여창 고택, 함양석화비, 함양석조여래좌상, 동호정, 거연정과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에 위치한 전 논개묘역(傳 論介墓域) 등의 유적지를 답사했다.



보은문화원

제31회 속리축전

보은문화원(원장 김건식)은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속리산잔디공원에서 보은군과 법주사, 국립공원속리산관리사무소,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속리산관광협의회 후원으로 제31회 속리축전을 열었다.

보은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과 법주사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며 역사적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지역으로 속리산 준령의 영기를 받아 대자연을 호흡하고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코자 속리산 산신제와 단풍가요제, 풍물경연대회, 거리축제마당을 위시하여 서예전시와 추억의 속리산 수학여행 사진콘테스트 등 각종 체험마당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하남문화원

하남 향토사료연구소 개소식

하남문화원(원장 양인석)은 향토사의 연구를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14일 오후 2시에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 향토문화연구소의 개소식을 가졌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하남 향토사학자인 김종규 씨가 맡아서 하남향토사 연구와 계발에 전력하기로 했다.



하동문화원

제23회 김경미술대상전, 제22회 학생미술실기대회

하동문화원(원장 정연가)은 10월 17일 하동송림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23회 김경미술대상전 및 제22회 학생미술실기대회를 개최했다.

고 김경 화백은 이종섭 화가와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를 이끌어 온 우리 고장 출신으로 김경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미술발전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행사로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하동중학교 3년 전아현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하영주(하동초등 병설유치원 난초반), 하수빈(적량초 2년), 김장미(하동초 6년), 황보민(하동중앙중 3년) 학생이 각각 금상을 받았다.

한편 대상 수상자인 전아현 학생에게는 수상일로부터 4년 이내에 미대 진학시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포항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향토문화유적답사

포항문화원(원장 권창호)은 10월 25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기'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 고유문화재의 자취를 되돌아보는 가족과 함께하는 향토문화유적답사를 가졌다.

지난 5월부터 '전설과 함께하는 구룡포' '선사와 고대, 현대문화재' '유교문화의 자취' '선현들을 찾아서' 등 향토유적답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10월 답사지역으로 원호대사와 해공선사 등 고승들의 수도처로 전해오는 운제산과 오어사(吾魚寺), 장기향교,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에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축성, 조선 세종 21년에 돌성으로 재축성하여 군사기지로 이용해 왔던 장기읍성을 돌아보았다.

또한 장기읍성은 귀양지로도 활용되었는데 우암 송시열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귀양살이를 한 곳으로도 전해 오고 있다.

장기척화비와 우암, 다산 선생시비를 비롯해서 지행면 방산리 묘봉산에 있는 고석사를 끝으로 답사일정을 마쳤다.



중랑문화원

제10회 중랑문화예술축제

중랑문화원(원장 김 용)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이틀간 중랑구와 공동으로 면목체육공원과 중랑천 둔치에서 제10회 중랑문화예술축제를 열었다.

'happy, fun, story'라는 주제로 개막 첫날은 복지단체 또는 협회별로 부스를 만들고 한방 무료진료와 가훈 써주기 및 중랑문화원 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도 가졌다.

축제 이튿날은 중랑미술인협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하회탈 그리기와 팔러비즈 체험장이 열렸으며, 지난봄부터 각동을 순회하며 '동파라 노래파라'의 우승자들끼리 실력을 겨루는 결선대회를 열어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꼈다.



광진문화원

제11회 광진청소년문예대제전

광진문화원(원장 신길웅)은 10월 12일 오전 11시부터 한강시민공원 고구려축제 메인무대에서 광진구와 서울성동교육청 후원으로 제11회 광진청소년문예대제전을 가졌다.

미래 지역문화발전의 토대가 될 청소년들에게 문예 창작활동의 기반을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관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학생이나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으로서 미술·서예·사진·문학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치른 결과 문학부문에 김하경(중광초 6년) 학생과 미술부문, 강수연(대원여고 2년)학생·김소영(동자초 2년) 학생, 서예부문에 이우진(광양고 3년)학생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으며, 강현민(구익초 5년)·김석현(중마초 3년)학생과 김혜진(대원여고 2년)·정하림(선화예중 3년)·김다희(신자초 2년)·주혜린(성자초 1년)학생이 문학분야와 미술분야의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서예부문 금상에는 이상훈(자양초 3년) 학생과 박민지(대원여고 1년)학생이 각각 수상했으며, 사진부문에는 정용욱(구남초 6년)·박범준(경복초 5년)·박원준(경복초 1년)학생이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경주문화원

2008안압지 상설공연폐막

경주문화원(원장 오해보)은 10월 25일 저녁 폐막공연을 끝으로 2004년부터 매주 토요일 경주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던 122회에 걸친 안압지 상설공연을 마감했다.

경주시 주최, 경주문화원 주관으로 매회 2시간씩 전통국악공연, 현대음악, 퓨전음악, 연극, 오페라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공연을 선보여 왔으며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향연은 천년고도 경주의 안압지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해 주었다.



부산 낙동문화원

제16회 낙동민속예술제

부산 낙동문화원(원장 백이성)은 10월 25일부터 이틀간 덕천초등학교에서 구포대리 당산참례와 부산 학생사생실기대회를 비롯해서 문화원 전통무용반의 교방무 공연과 민요장구반의 우리민요, 낙동청소년예술단의 청소년 째즈, 발레,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평양예술단 초청 공연도 있었다.

둘째날 민속경연대회에서는 민요경창과 독무, 군무 등 전통무용에 이어 떡매치기 체험, 페이스페인팅, 요술풍선, 도자공예, 천연염색, 한지공예, 민화전시, 연 만들기, 규방소품, 가훈 써주기 등 현장체험이 있었으며, 기차달리기, 씨름, 제기차기, 윷놀이, 미니볼링, 협동줄넘기, 율체어타고 달리기, 목침당기기,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있었다.

이 밖에도 사랑골예술단 초청, 살풀이춤 공연과 장구춤 협연, 낙동전통예술단의 한량무와 태평무, 구포대리지신 밝기보존회의 구포대리지신밝기 재현, 동래야류이수자의 동래학춤 초청 협연 등 초청 공연이 있었다.



구리문화원

제22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구리문화원(원장 김문경)은 온달장군보존회와 함께 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부터 아차산 대장간마을 공터에서 구리시와 바보온달산악회의 후원으로 제22회 온달장군 추모제향을 열었다.

이날 제례는 구리문화원 고병선 사무국장의 집례로 박영순 구리시장과 김문경 구리문화원장, 이정길 바보온달산악회 차기회장이 초헌관 등의 역할을 맡아 진행했다.

제례 식전행사로 구리문화원 풍물패 '여음'과 '진도복춤'이 흥을 돋우었으며, 교문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관하여 전통제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온달장군 추모제향은 구리문화원과 바보온달산악회에서 22년 전부터 매년 10월 초에 아차산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온달장군을 기리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문화원

제5회 수원학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

수원문화원(원장 유병헌)은 11월 7일 오후 수원시민회관 중회의실에서 '수원 - 과거를 딛고 미래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제5회 수원학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안대 박천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수원문화원 유병헌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거나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화성 및 화성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대 조성을 교수의 '화성박물관의 특성화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수원역사박물관 한동민 선생의 토론에 이어 경기대 김동욱 교수의 '화성의 전통적 특성과 현대의 도시개발 방향'

과 홍익대 김동훈 교수의 '수원시내 4대문 안의 도시계획(가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수원시 화성사업소 김충영 소장과 역사문화해설가인 염상균 선생의 토론이 각각 있었으며 수원대 정일동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고흥문화원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 및 답사

고흥문화원(원장 송문석)은 지난 10월 11일 고흥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전주 전통한지원, 경기전, 공예품전시관, 지방문화원 실버문화축제 등을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고흥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아래 실시되었다.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한지를 만드는 공방,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 한방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영주문화원

2008영주역사인물학술대회

영주문화원(원장 박찬극)은 11월 7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시 주최로 2008영주역사인물학술대회를 주관했다.

13세기 고려시대에 출생한 역사적 인물로 관동별곡, 죽계별곡을 창작한 근제 안 축(謹齋安軸) 선생, 충성과 효도로 청빈하게 살다 간 문경공 안보(文敬公安輔) 선생, 성리학을 철학으로 조선 5백년을 설계하고 개국하신 위대한 정치가 삼봉 정도전(三峰鄭道傳) 선생님이 이 나라에 끼친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이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의 발표자로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려대 최상용 명예교수의 '지금 정도전을 생각한다. 위대한 정치가의 탄생', 상명여대 김동욱 교수의 '근제 안 축의 세계인식태도와 문학사상', 수원대 전영우 교수의 '문경공 안보의 생애와 그의 인품'에 대한 발표가 각각 있었다.



유성문화원

광주비엔날레를 만나다

대전 유성문화원(원장 한근수)은 지난 10월 10일 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만남과 매개의 공간 광주비엔날레를 다녀왔다.

의재 허백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의재미술관을 비롯하여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관람으로 깊어져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뜻 깊은 탐방기회를 가졌다.



대전 서구문화원

2008문화학교작품전

대전 서구문화원(원장 박세규)은 10월 14일부터 5일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전시실에서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 개개인의 노력과 맘의 결실로 이들 대부분이 가정주부들로서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표현한 유화, 수채화, 한국화, 서예, 문인화를 비롯해서 찬조작품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 연륜이 더해갈 수록 작품의 중후함도 비례하고 있다.



과천문화원

2008추사문화제

과천문화원(원장 최중수)은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1개월간 과천시 주최로 과천시민회관을 비롯한 과천농협 강당에서 2008추사문화제를 주관했다.

제5회 추사서예대전을 시작으로 문우서림 김영복 대표와 교원대 원용석 교수의 추사논문 발표회, 추사 김정희가 근대 서예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역사문화아카데미, 후지쓰카 기증 추사자료전 및 '청조문화 동전의 연구' 완역본 발간 등 추사자료 전시회, '한파과천국악예술단'에 의한 추사 일대기를 엮은 추사가무악극 공연, 추사학술대회, '추사사상과 청대사상의 비교'를 주제로 추사연구회와 한중철학회의 공동학술대회, 세한도(歲寒圖), 판전(版殿) 등 추사 탁본체험 및 추사 퍼즐맞추기·추사체 컴퓨터출력·추사체 가훈 써주기 등 추사의 예술혼 체험코너 등을 마련하여 추사선생이 과천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예술혼을 불태웠던 역사를 과천시민들과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문화원

제22회 가평문화백일장

가평문화원(원장 조정현)은 10월 16일 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및 체육관 운동장 일원에서 글짓기와 사생, 서예부분을 대상으로 제22회 가평문화백일장을 열었다.

관내 초·중·고교생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 백일장에서 서예부분에 정명직(가평초 3년), 이보승(가평초 5년), 표재은(가평중 3년), 김다래(가평고 1년) 학생이 각각 장원을 차지했으며 사생부분에는 박병준(가평초 3년), 조서영(마장초 5년), 석민(가평중 2년), 이경인(가평고 2년)학생이 각각 대상 입상을 했다. 그리고 글짓기 운문에 손민애(방일초 3년), 이희원(목동초 6년), 공다솜(설악중 3년), 이진희(가평고 2년)학생이, 산문에 강지우(대성초 3년), 황유민(청평초 5년), 이소연(가평북중 1년), 오지영(조중고 2년)학생이 각각 장원을 차지했다.



용산문화원

우수가족뮤지컬 마법의 동물원공연

용산문화원(원장 박영희)은 12월 2일부터 3일간 1일 2회씩 용산문화원 3층 공연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우수가족 뮤지컬 '마법의 동물원'을 공연했다.

3,000원씩의 공연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관객들은 '마법사의 검은 마법에 걸린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환상의 세계인 꽃의 나라, 얼음나라, 학의 나라로 떠나는 엄지와 덜렁이의 신비한 모험에 감동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부산강서문화원

제12회 강변사생대회/제14회 가람백일장

부산강서문화원(원장 김영실)은 10월 18일 오전부터 맥도생태공원에서 부산시 강서구 주최로 관내 초·중·고교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강변사생대회와 제14회 가람백일장을 주관했다.

관내 초·중·고교생들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제고한다는 취지아래 열린 이번 사생대회에서 대저중앙초교 3년 김아린 학생과 낙동중 3년 강미경 학생, 경일고 2년 이지선 학생이 각각 영예의 금상을 차지했으며, 백일장에서는 운문부 장원에 정해민(대사초 4년), 최진(낙동중 1년), 황초룡(경일고 1년)학생이, 산문부 장원에 박재완(가락초 4년), 신연희(낙동중 3년), 정선미(경일고 2년)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문경문화원

2008문화학교 및 실버문화학교 종합발표회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나를 새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목표아래 운영한 2008문화학교 및 실버문화학교 종합전시발표회를 11월 5일 오후 지역기관·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민회관에서 가졌다.

문경문화원은 지난 4월 20개 과정의 문화강좌를 개강, 평생교육을 통해 6백여 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특화하여, 사물놀이반이 경상북도 풍물대회에서 장원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시조창반도 각종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했으며 민요반과 무용반은 구전에 오는 향토민요를 전수, 향토민요에 맞는 무용을 창작하여 작품화하는 등 향토문화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채대진 원장은 대회사에서 '문화학교를 통해 수강생들이 더욱 새로워져 지역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으며 신현국 문경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 지원이 부족한 데에도 큰 성과를 얻고 있는 문화원 운영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해문화원

제5차 문화가족 문화탐방

김해문화원(원장 한고희)은 10월 23일 전남 순천시 일원의 사찰과 고적을 찾아 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제5차 문화탐방 길에 올랐다. 첫 번째 탐방지는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였다.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인 태고총림(太古叢林)으로 이곳 강원과 선원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중합수도 도량인 선암사를 답사하고 낙안면의 넓은 평야지에 축조된 성곽 낙안읍성의 민속마을을 돌아보았다. 관아와 백여 채의 초가가 돌담과 찻마루에 가려 소담한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낙안읍성을 둘러본데 이어 조계산 자락에 많은 고승 대덕을 배출해서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로 널리 알려진 송광사와 순천만 일대를 돌아보는 문화탐방 기회를 가졌다.

*삼보사찰 : 세 가지의 보배라는 뜻으로 불보(佛寶)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석가모니를 말하고, 법보(法寶)는 부처가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중생을 위해 설명한 교법이며, 승보(僧寶)는 부처의 교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제자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고 하며,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모셔져 있어 법보사찰이다. 그리고 보조국사와 진각국사를 비롯해서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180년 동안 16명의 국사를 배출하면서 승보사찰의 지위를 굳혀 왔으며 한국 불교의 승맥(僧脈)을 잇고 있는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고 한다.



칠곡문화원

내 고장 칠곡과 가야, 백제, 신라의 역사문화체험

칠곡문화원(원장 장영복)은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4차에 걸쳐 지역문화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경험을 통한 개인의 학습계좌제 이력관리로 사회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주민의 교육·문화 양극화 해소 및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아래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새터민, 실직자, 장애인 가정, 농업인, 55세 이상의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칠곡의 역사, 문화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야, 백제, 신라 3개 권역을 회차별로 나누어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가졌다.

경북과학대학 배기현 문화재관리과 학과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이들 3국의 건국과 시대별 역사·문화 연계를 통한 폭넓은 지식을 함양하고자 칠곡의 역사와 문화이야기를 비롯해서 김해박물관과 구지봉, 허황후릉, 김수로왕릉 등 대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령·김해 문화탐방, 경주박물관과 천마총, 안압지, 남산 보리사, 감은사 등 신라천년의 미소를 간직한 경주문화탐방, 계룡산 갑사와 공주박물관, 송산리고분군, 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군 등 백제문화의 보고 부여·공주 문화탐방으로 역사현장 학습이 이어졌다.



인천 남구학산문화원

주민이 만드는 제5회 하품영화제

인천 남구 학산문화원(원장 이선규)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영화공간 주안'에서 '주민이 만드는 제5회 하품영화제'를 열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전문가의 행정과 테마가 있는 영화제를 개최하여 세상 여러 곳에 여러 형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하품영화제의 주제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상한 엄마'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의 모습과 생각을 영화 상영과 다양한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제의 테마에 동화되고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밖에도 영화상영관 로비에서 '그녀,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엄마와 자녀' '엄마의 희생' '엄마의 아름다움' '강한 엄마' '여자로서의 엄마' '엄마의 현재모습' '엄마의 과거모습' 등 엄마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렸으며, 같은 장소에서 '프리티크!! 속시원한 우리들 이야기'라는 제목의 낙서판을 마련하고 엄마로서 혹은 엄마에게 쓰는 메시지를 담게 했다.

또 엄마를 주제로 한 도서를 비치해 놓은 북카페를 비롯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과 이웃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발표, 공동체 놀이, 음식 나누기, 영화 상영 등의 이불영화제도 함께 열어 성황을 이루었다.



원주문화원

강원청소년연극축제

원주문화원(원장 강태연)은 11월 15일부터 이틀간 문화원 공연장에서 원주시와 원주교육청, 강원문화재단의 후원과 원주시농협의 협찬으로 강원청소년연극축제를 열었다.

강원도 전역의 중·고교 연극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극축제에서 복원여고 '아침'의 '벽을 넘어'와 '환희'의 '천국에도 그림자는 있다', 원주여중 '아미'의 '그림자', 삼육고 '유두리'의 '황금신부', 강릉 강일여고 'B&B'의 '아름다운 사인', 속초 설악여중 '우리까면'의 '흑설공주 이야기' 등이 열연을 펼친 결과 최우수작품상(원주시장상)에 원주여중 '아미'의 '그림자'가, 그리고 개인상으로서 최우수연기상(원주교육장상)은 복원여고 '환희'의 이지연 학생이 각각 받았으며, 특별상인 우수지도자상에 원주여중 '아미'의 정계영 교사가 원주교육장상을 받았다.



영등포문화원

제9회 구민동대향상작 및 애송시낭송대회

영등포문화원(원장 고상권)은 11월 14일 저녁 영등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영등포구 후원으로 관내 거주 고교생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제9회 구민동대향상작 및 애송시낭송대회를 가졌다.

구민들이 개인의 창작시 및 평소 애송하는 시를 낭송하여 아름다운 마음과 생활 속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낭송대회는 지난 10월 28일 예심을 거쳐 선발된 인원이 참가한 대회로서 영예의 대상에는 신길3동에 거주하는 김미경 씨가 차지했으며, 영등포동 문미란 씨가 금상을, 그리고 관악고 1년 정유경 학생과 대림3동 손윤정 씨가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구미문화원

박정희대통령 91회 탄신기념 송모제

구미문화원(원장 김교승)은 11월 14일 오전 11시 구미시 상모동 박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대통령 91회 탄신기념 송모제와 기념식을 가졌다.

민족중흥의 위업을 달성한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미지역 기관단체장 등 지역 주민과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박대통령의 육성녹을 청취, 기념사, 축사에 이어 박근혜 의원의 유족 인사 순으로 송모제와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김교승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조국근대화를 이룩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박대통령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아 님의 지도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했다.



구로문화원

2008구로구 휘호대회

구로문화원(원장 장영신)은 11월 15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관내 초·중·고교생 및 구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2008구로구 휘호대회를 가졌다.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구로구휘호대회를 통하여 구로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구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아래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대상에는 이재성(개명초 2년), 조현영(구로남초 5년), 이정화(경인고 2년) 학생과 일반부의 지현 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도 김민주(영서초 1년) 학생 등 8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포천문화원

제3회 가족시낭송경연대회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1월 15일 오후 포천시 여성회관 3층 만찬장에서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문인협회 후원으로 제3회 가족시낭송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시가 만날 때'라는 주제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시 낭송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가족 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결과 신읍동에 거주하는 김민경(15) 양과 어머니 차봉자 님이 '우체통이 있는 낡은 풍경'을 낭송,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소흘읍 한시원(7) 군 가족이 금상을, 그리고 일동면 한도연(14) 군 가족과 천명숙 님 가족이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마르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 가족끼리 시를 낭송하며 대화의 꽃을 피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시 낭송대회를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이 대회를 계기로 시를 사랑하는 풍토가 더욱 진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문화원

2008대학로 청소년축제

종로문화원(원장 심재득)은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TTL무대에서 종로구와 공동으로 '2008대학로 청소년축제'를 열었다.

이날 축제는 공식행사에 이어 대학 응원단 치어댄스 공연과 '밀키스'의 전자현악 연주, 비보이 애니메이션 크루 댄스 공연과 즉석 댄스 경연대회, 신동 트롯 진 옥과 트로트 나이트킹의 축하공연, 초대 가수 아웃사이더를 비롯해서 각종 묘기의 마술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오후시간을 보냈다.

심재득 원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동향이나 정치정세가 어려운 때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곳곳하게 걸어가 주기를 바라는 의미가 이번 청소년축제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특히 수능생들에게 그동안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껏 날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문화원

제1회 태안역사문화학술포럼

태안문화원(원장 명수남)은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태안군 후원으로 태안의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1회 태안역사문화학술포럼을 가졌다.

이날 주제별 발표에서 이해준 교수(공주대)는 '태안 태일전(太一殿)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 '태일성(太一星)과 태일전', '백화산 태일전의 유적 현황', '태일전과 태안 백화산'에 대한 고증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윤용혁 교수(공주대)는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을 주제로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 '보령 고만도정과 서산 안흥정', '태안 마도와 안흥정', '안흥지역의 해양유적'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발표 중간에 김영근 시인의 시낭송(청자송 靑瓷頌)도 곁들여졌으며 문화재위원 나선화 박사의 '태안 도자기 생산유적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섬 해저청자박물관 건립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명수남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발표회를 계기로 태안의 역사 문화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태안문화 발전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나주문화원

제4회 나주문화원의 날 행사

나주문화원(원장 정경진)은 11월 21일 11시 30분부터 나주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제4회 나주문화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 제1부에서는 '나주라, 나주이야기 1' 웅기항아리 만들기 시연과 DVD '쪽돌마을 여름이야기'를 상영하고 제2부 기념식에 이어 제3부에서는 '나주라, 나주이야기 2' 옛날 흑백사진 다시 보기와 옛치기 경연대회, 읍면동 대항 새끼줄 고기 경연대회를 가졌으며, 부대행사로 토우교실과 조각교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달성문화원

제3회 민요단원 정기발표회

달성문화원(원장 전상호)은 11월 28일 오후시간에 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달성군과 영남판소리보존회 대구시지회, 풍물마당의 후원으로 제3회 민요단원 정기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는 박정덕 외 4명이 모듬북으로 흥을 돋운 가운데 화원초·현풍초등학교 국악부의 풍년노래와 탈춤놀이로 이어 문화원 민요단원들과 영남판소리보존회 달성군지부 회원들이 1년 동안에 걸쳐 공부한 민요와 무용,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판소리 등으로 늦은 가을 정취 속에 저녁시간을 보냈다.



남해문화원

남해읍성의 보존 가치와 활용 방안 심포지엄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은 11월 12일 남해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남해군 후원으로 '남해읍성의 보존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문화원 회원과 향토사연구위원 등 3백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호균 원장은 인사를 통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해읍성은 세종17년(1437)에 읍을 설치하고 세조5년(1459)에 읍성을 축성했으나 임진왜란 때 허물어져 영조33년(1757)에 복원하여 세월 속에 훼손되어 현재 몇 군데 성곽이 남아 있으나 이번에 다시 발견되어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방안 등 학계와 향토사학자, 읍민들의 관심 속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성철편찬위원장의 사회로 경상대 최원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종도 소장과 임상연 연구위원의 지정토론으로 남해읍성의 보존 가치에 대한 당위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에서 도시계획 도로작업 공사 중 남해읍성으로 추정되는 돌담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받은 후 이에 대한 고증 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면이 바다로 접해 있는 남해군은 예로부터 해적이나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많은 성(城)과 봉수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책을 강구해 왔는데 문헌에 의하면 남해읍성은 석성(石城)으로 전체 둘레가 약 1.3km, 사방이 325m 내 외의 잔존하는 부분은 남해군청 서쪽의 민가와 담장을 이루는 구간 110m와 남쪽(남문) 좌우측 90m만 남아있고 축성방법은 기단부 30m 정도 돌출시키고 장대석(길이 100cm, 두께 30cm)을 맞 쌓기 방법으로 축성하였다.

2008국제학술대회 선비와 선비정신

남명학연구원(원장 이성무)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현재)는 10월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선비와 선비정신'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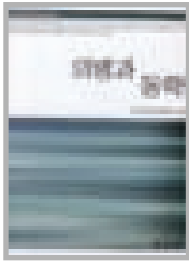
이성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선비는 시대를 초월한 정신적 표상으로서 선비정신과 선비문화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 왔기에 선비와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미와 계승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하면서 선비는 운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닦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목표는 실천이라고 말하면서 선비정신에 있어 남명 조식의 '경의(敬義)사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즉, 경(敬)이란 마음을 닦아 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이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며 뜻을 밖으로 펼쳐 실천하는 의(義)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선비정신의 실천적 측면으로 선비가 관직에 나가는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道)의 사회적 실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전 성균관대 교수는 '선비의 본의(本義)와 선비정신'이라는 제하의 기조발표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재야에 묻혀 은일하는 것을 선비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말하면서 벼슬에 나 갈만 한 때를 만났는데도 은거하는 것은 선비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선비의 '출처관(出處觀)'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항공대 최봉영 교수(한국사와 선비의 전통), 경북대 설석규 교수(남명 조식의 도학적 세계관과 선비정신), 중국 인민대 갈영진 교수(중국적 유생정신), 경상대 최석기 교수(조선의 선비와 그들의 공부), 일본 고베대 타카하시 교수(일본의 무사도), 서울대 이종목 교수와 조영달 교수(성리학적 사유를 구현한 조선 선비의 집/현대의 지식인과 선비정신의 재해석) 등 관련 학자들로부터 선비정신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병련 선생과 경상대 손병욱·한국학중앙연구원 권오영·동양대 강구울·고전국역원 이상하·건국대 신병주·한국교원대 박병기·대진대 권인호 교수의 종합토론이 각각 전개되었다.



책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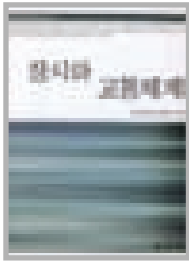
의병과 동학

한국문화원연합회 엮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1986년부터 23년간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을 통해 발굴해 낸 자료가 2백여 편에 달한다. 해마다 수상작품을 모아 비매품으로 수상집을 발행해 왔으나 발행 부수 등의 제한으로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동안의 수상작 중에서 총서 제1집으로 '의병과 동학' 관련 논문 9편을 게재하였다.

조선시대 중기이후 지역의 의병이나 동학 농민군의 활동은 중앙의 역사서보다는 지역의 자료 즉, 향토사료에 더 많이 남아있고, 또 이 사료들을 발굴함으로써 보다 역사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학술총서 제1집인 '의병과 동학'에서는 '전작지로 통해 본 칠전량해전', '석주관전적지에 대한 연구', '임란 합천의병 활동', '울미의병실적'을 통해 본 춘천전기의병 활동', '영월지방 3·1만세운동에 관한 연구',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연구', '서천 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연구',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사발통문에 대한 제 고찰' 등이 9편이 실려 있다. (국배 변형판 376쪽, 정가 25,000원)



장시와 교통체계

한국문화원연합회 엮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1986년부터 시작해서 23년간 '전국향토사공모전'을 통해 발굴해 낸 자료가 2백여 편에 달한다. 매년 입상작을 묶어 수상집을 발행하였으나 비매품으로 발행부수의 제한 등 유통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의 수상작 중에서 '장시와 교통체계'라는 특정 주제로 '한국문화원연합회 학술총서 제2집'에 '생발장을 통해본 현대 오일장의 의미'와 '서산지방시장의 역사', '조선 후기 음성지역 장시연구', '지역시장체제 변천에 따른 공소염전의 역할과 기능', '인천 개항장의 역사·문화·지리' 등 5편의 시장관련 주제와 '낙동강 수운사에 대한 연구'와 '조형 일록'의 무대 성당창과 익산 일대의 조운 유적', '일제 강점기 중앙선 치악터널 굴착의 재조명', '유곡역도의 위치와 역할', '태백산 사길령의 신령각 문건 조사연구' 등 5편의 교통관련 주제를 포함해서 모두 10편의 논문을 실고 있다. (국배 변형판 488쪽, 정가 32,000원)



三峯山 詩韻集〈高梯儒契誌〉

거창문화원 발행

삼봉(三峯)은 거창(거제)의 북쪽 진산 삼봉산을 뜻하며 산두(山頭)는 태산북두(泰山北斗)로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비유한다고 이 책 서두에 풀이해 놓았다. 즉, 삼봉산 아래 고저에서 유계(儒契: 배움과學→유학+儒) 벗(交學→모임→契)을 뜻함을 창시하고, 이에 참여한 선현들의 시문을 모은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고제유계(高梯儒契)는 조선 고종 25년 봉서 하종호(鳳棲 河宗浩) 선생이 국문이 기울어짐을 개탄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유생들을 모아 백일장을 개최하고 강학하며 유학을 권장한 것을 시초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거창문화원 정주환 원장은 '선현들이 남긴 유물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풍속과 정신이 담긴 소중한 것이어서 한번 실수로 훼손되면 복원될 길이 없으므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잘 살려 유지보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존하는 고제유계를 재조명하고자 상세한 해제와 번역한 국역판을 발간하여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김해의 지명전설

김해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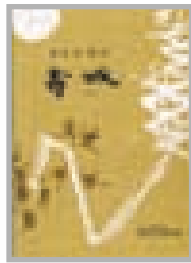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에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이야기가 지명전설이다.'

이상은 김해문화원 한고희 원장이 발간사에서 한 말이다. 한 원장은 또 낙동강 줄기를 따라 삶의 터전을 이어오던 들판과 골짜기들이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로, 산업단지로 급변해 가고 있어 부득이 이전의 지명과 지명전설을 모으고 그 의미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 책 발간의 당위성을 말한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창원대 이홍숙 박사는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의 마을과 마을이름도 사라졌으며 그나마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농어촌은 더 이상 그 이름과 이야기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산직할시 편입지역을 포함한 김해시, 진영읍, 가락면 등 읍·면별로 자세히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수록해 놓았다.

책갈피



대구의 뿌리 壽 城

수성문화원 발행

수성과 달성이 대구의 양대 뿌리였음을 자랑하는 수성문화원 이영배 원장은 각종 발굴 조사에서 살펴볼 때 수성구는 상고시대부터 고인돌 유적과 청동기 유물 등 대규모 집단가주지역이 형성되어 온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각 시대별로 수성의 역사와 변천과정, 수성의 인물, 지정문화재와 주요 유적·유물, 노거수, 전설과 예악, 현대의 기관과 명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국역 慶州郡

경주문화원/경주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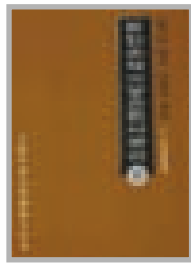
경주문화원 오해보 원장은 '1934년에 발간된 <경주군 생활상태조사>가 발견되어 일제 강점기 당시 경주의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와 여러 가지 통계를 비롯해서 옛 풍물과 문화재 사진 등 200여 장이 실려 있어 자료 활용가치를 평가, 보완 번역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목차별로 연혁과 행정, 지세·기후, 토지, 호구, 물산, 교통, 통신 등을 일람할 수 있는 지지(地誌)부문과 고적, 고분, 전설, 의식주, 사회계급, 가족제도, 관혼상제 등 풍속·습관, 취락, 문화 사상, 경제사정, 가계조사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文苑叢寶

과천문화원 발행

문원총보는 회갑 축하시문집으로서 과천에 살던 신증묵(愼宗默 1856-1949)이 1916년에 회갑을 맞아 자신 및 친족·지우·제자 등이 지은 사축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관원이며 문인, 그리고 교육자인 신증묵은 선대부터 과천에 살아온 세족 출신으로, 과천지역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여 회갑연을 맞아 자손의 축수(祝壽)뿐 아니라, 친지·문하생들의 축수와 축시를 받은 즐거움을 누렸다. 이를 기록한 '문원총보'를 통해 약 90년 전 과천의 회갑연후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과천 향토사의 중요한 자료로 당시 5백편의 축하시문이 접수되었다고 우산(愚山)의 수연자서(睟筵自序)에 기록되어있으며 이 책에 수록된 시문만도 2백여 수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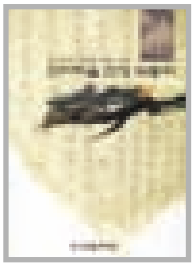
문헌소재고양관련사료집

한국사 속의 고양시 역사

고양문화원 발행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시는 개성과 한양을 잇는 길목으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남진기지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개성과 임시수도였던 강화에 인접하여 수많은 정치적 사건을 겪었고, 조선시대에는 한성과 인접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의 중심권 내에 있었다고 고양문화원 한학수 원장이 밝히고 있다. 이 사료집에는 현존하는 국내외 역사책과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고양의 명칭, 행정구역, 관직, 문화재, 고양관련 정책, 사건, 생활가사 등을 발췌하고 이를 체계화해 놓은 것으로 조선 경종부터 순종실록까지의 기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고양관련 자료를 모아 수록해 놓은 자료집이다.

책갈피



선비마을 안성 덕봉리

안성문화원 발행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는 해주오씨의 집성촌으로서 예부터 유수한 학자들을 배출해온 선비마을로 정평이 나 있다.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송림이 수려하고 덕봉서원과 오정방 고택 등 문화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덕봉리의 역사와 환경, 풍수지리, 생태환경, 경제활동, 해주오씨 세보의 편찬경위 등 친족공동체 생활, 마을의 인물, 신앙과 종교, 문화유산, 덕봉마을과 3·1운동 등 역사를 비롯해서 덕봉마을의 현안과제와 발전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마을지이다.



진도동네 노래꾼들

- 진도민요 채록집 1

진도는 민요부분 국내 제일의 가창지역으로 진도잡가, 진도들노래, 진도만가, 강강술래, 닻배노래 등이 민요부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요의 바탕이라 할 당골굿 중 씨감굿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다. 진도문화원 김정호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원류에 대한 시비나 지정 후 화석화가 불가피해 지역 주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와 유리현상을 보여 진도에서 연회되거나 가창되는 여러 형태의 민요를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비지정 예능자 30명의 노래를 채록하였으며 CD 제작을 위한 동영상까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들레 낱꽃

연규자 산문집

작가 연규자 씨는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으로서 현재 경기도 시흥문화원에 재직하고 있다. 작가는 십여 년 전에 첫 시집을 출판한 이래 늘 부끄럽고 짐스러웠다고 자서(自序)에 밝히면서 이 산문집도 그 만큼의 세월 뒤 이 같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섬세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글은 더욱 섬세하다. 문장을 엮어가는 과정이, 표현이 티 하나 없이 투명하고 솔직하다. 이렇듯 맑은 영혼을 지닌 작가 연 선생이 문화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럽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관계자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출판문화회관에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종료 후, 주요자산의 실질적 관리 및 향후 지속적 운영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리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업 관계자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참석자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옥성 지역문화과장, 지역문화연구소 정승모 이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진 연구위원, 김이기 사무총장 등 심의위원과 법무법인 해마루 장영석 변호사, 김태원 원장(안성), 강태연 원장(원자), 전찬덕 원장(충주), 남명수 원장(진천), 유성열 원장(서천), 정창환 원장(정읍), 이기화 원장(고창), 김안영 원장(통영), 김병수 원장(서귀포)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마을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보조금 취득자산의 소유 및 관리운영 기본 방향과 각 지역별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과 종합토론이 있었다.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영남지역 전통예술 전승·보급 및 발전에 중심이 될 국립부산국악원을 개원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착공 4년 만에 준공, 10월 28일 오후 4시 30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19-2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부산국악원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설 공연은 물론 교육을 통한 국악의 보급, 전통공연 예술의 조사 및 발굴·보존,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통공연문화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농업인품물경연대회

국악방송(이사장 윤미용)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한국마사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 수원화성운영재단의 후원으로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2008전국농업인품물경연대회를 주관했다.

국악방송 윤미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품물은 우리 민족의 농민정신이 깊이 담겨있는 한국 전통의 종합민속예술로서 전국 들판에 우리 품물이 가득 올려 퍼지기를 기원하다’고 말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은 ‘전국 농업인들이 논과 밭에서 올리던 품물의 신명을 함께 나누고 견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로서 의미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이광수 명인과 민족음악원의 축하공연으로 ‘비나리’와 ‘판굿’에 이어 수원 대유평두레의 두레농악, 송파품물놀이, 인천 서구품물단, 대전 서구 감천품물단, 청원 현도품물놀이단, 보령 한내골품물패, 익산 서동품물단, 횡성 밤두독품물단, 달성품물놀이패, 광산 호남 우도농악, 서귀포 남원품물패, 부산 연제소리향품물단, 울산내드름전통예술연희단, 진도실버민속예술단, 산청매구품물단, 예천 흑응품물단의 신명나는 경연이 펼쳐졌으며, 경연팀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또랑광대 김명자’의 ‘수퍼대 씨름대회 출전기’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축하공연을 끝으로 경연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시상식에서는 횡성 밤두독품물단의 전통품물굿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원 대유평 두레농악이 금상을, 그리고 대전 서구 감천품물단과 산청매구품물단이 각각 은상과 동상을 차지하였다.



11월 18일, 서천 동자북 문화역사마을 기공식



서천문화원(원장, 유성열)은 11월 18일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마을에서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13개 문화원장과 마을주민 등이 참석, 이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유성열 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문화역사마을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사업이다.”라며 지속가능한 마을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6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서천 동자북 마을에는 총30억원이 투자되어 마을전통주인 소곡주와 한산 모시 등 전통문화의 계승보존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과 운영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2008 실버문화포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행회 관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1차관과 각 지방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실버문화포럼’을 열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3%(2008. 7. 통계청 발표)인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세대의 문화역량 발굴과 이를 매개로 지역과 연계하여 문화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실천 프로젝트인 실버문화학교를 주관, 새로운 노인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추계예대 박은실 교수의 진행으로 전국 문화원 관계자와 현장 강사 등이 참가하여 고령화 사회 실버문화 현황을 비롯한 프로그램, 제도개선 등 노년세대 문화를 총괄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홍길 위원장의 ‘고령화 사회 실버문화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림대 고령화사회연구소 김영범 교수로부터 ‘우리나라 실버여가활동의 실태와 과제’,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이금룡 교수의 ‘실버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팀 조현성 책임연구원의 ‘고령화사회 실버문화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발제와 함께 건양대 라운도 대학원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양효석 문화협력사업본부장,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정동우 교수, 06~08실버문화축제 윤성진 총감독, 유 경 사회복지사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버문화정책의 발전전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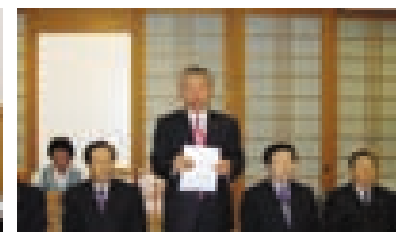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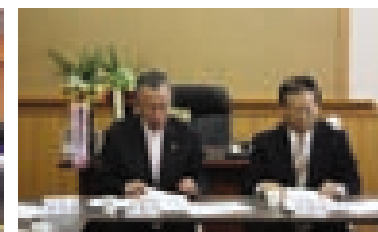
이날 토론에 앞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은 ‘이번 포럼으로 실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는 물론 정부 노인문화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김장실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실버문화 프로그램은 제2의 인생을 값지게 채울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전제하면서 오늘이 포럼에서 많은 발전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지회별 지방문화원장 연찬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각 시·도지회별로 지방문화원장 연찬회가 지난 8월 28일 인천광역시지회를 시작으로 9월 22일 광주광역시지회, 10월 13일 충청북도지회, 10월 22일 전라북도지회, 10월 23일 대전광역시지회, 11월 3일 강원도지회, 11월 4일 울산광역시지회, 11월 5일 부산광역시지회, 11월 14일 경상북도지회, 11월 21일 제주도지회, 12월 4일 경기도지회, 12월 9일 전라남도지회, 12월 10일 서울특별시지회, 12월 12일 경상남도지회, 12월 17일 대구광역시지회 소속 지방문화원장 연찬회가 각각 열렸다.

소속 문화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모인 연찬회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은 ‘실버문화축제 2008 전주’ 등 연합회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09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청취를 비롯해서 문화원 간의 정보교환 시간을 갖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 실버문화학교 최종 워크숍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 진주실에서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 후원으로 2008실버문화학교 추진 100개 문화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2008 실버문화학교 최종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버문화 프로그램이 실버세대 자신들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고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지역과 연계하여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까지 창출하는 적극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의 사례발표 등 현장 경험담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산시지회 이규상 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2008 실버문화학교 추진 성과 분석과 추진 사례발표, 2009년 실버문화학교 추진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에서 2008년 실버문화학교 총평(윤성진 총감독)과 사례발표(부산진문화원 박윤규 사무국장, 대전 서구문화원 송재민 사무국장, 문경문화원 고성환 사무국장, 전주문화원 배순향 사무국장, 논산문화원 이준창 사무국장)를 듣고 난 후 2008년 실버문화학교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토론회가 이어졌다.

다음날인 12월 3일 오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장상호 총무국장의 사회로 워크숍의 정리토론이 있는 다음 부산지역에 대한 문화탐방이 있었다.



원장동정



울주문화원장에 변양섭 씨

울주문화원은 지난 10월 7일 울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변양섭(卞良燮 62)씨를 제 4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선임과 동시에 신장열 울주군수 권한대행과 서우규 울주군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신임 변양섭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양산대 호텔조리학과를 졸업한 바 있는 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박제상 문화제를 울주군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과 '울산재애발기' '멸치후리그물당기기' 등의 전통 민속놀이를 계발 보존하는데 힘써나간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포문화원장에 강보희 씨

김포문화원은 지난 10월 17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3명의 후보자가 경선, 다득표를 한 강보희(姜輔熙 64) 씨가 제9대 원장에 선임되었다.

10월 20일 강경구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이영우 의장, 김포교육청 전세훈 교육장, 김포경찰서 노혁우 서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문화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강 원장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민 누구라도 지역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산문화원장에 김시운 씨

예산문화원은 지난 9월 10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후보자가 경선, 참석 회원의 65%를 득표한 김시운(金是云 60) 씨가 제15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11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승우 예산군수와 예산군의회 권국상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박웅진 총남지회장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장, 군의회 의원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원장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사회교육과 청소년 문화활동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농업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김 원장은 방통대 농학과와 공주대 산업개발대학원을 졸업(공학석사), 서울대 고급관리자과정을 수료, 공주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0년 전부터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목포문화원장에 김석철 씨 재선임

목포문화원은 지난 9월 30일 오전 11시 한울웨딩문화원 별관에서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 결과 회원들의 추대로 김석철(金錫澈 72) 현 원장이 제10대 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재추대를 받은 김 원장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원장은 목포사범학교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목포 상동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46년간 교직을 지켜왔다. 최근에는 목포문화원 부원장을 거쳐 2004년 11월부터 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재선 임기는 2012년 10월말 일까지이다.

원장동정



의성문화원장에 마재하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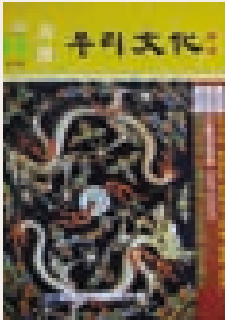
의성문화원은 지난 10월 20일 문화원에서 원장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세 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으나 2명의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마재하(馬在河 61)씨가 제7대 원장에 추대되었다. 10월 24일 의성군민회관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과 김복규 의성군수, 의성군의회 김수문 의장, 지역의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문화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마재하 원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대학을 졸업한 마 원장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종우 지회장(경북) 경상북도문화상 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 김종우 경상북도지회장이 지난 10월 21일 경북 안동시민회관에서 제49회 경상북도문화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9월 30일 경상북도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내 30개 기관으로부터 각 부문별 후보자 105명이 추천된 가운데 부문별 연구실적과 창작활동 실적, 경기지도력, 문화활동 실적, 지역 공헌도, 도정 발전기여도, 봉사활동 실적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평가표에 의해 김종우 지회장이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연합회에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1988년 11월 1일 발행되었던 창간호 우리문화를 기억합니다. 편집도, 내용도, 만들던 사람도, 시대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그 때의 그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작은 소리일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나누는 데 노력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 모든 원고는 한글·워드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그림 파일은 한글문서에 붙인 형태가 아닌 이미지 파일(jpg나 bmp 등)로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파일 용량이 큰 것으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원 소식을 제외한 글은 편집부로 문의하신 다음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부 02) 704-4311
주간 채강희 010-8631-2809 achae@naver.com
팀장 문선희 011-9017-3486 lune20@gmail.com